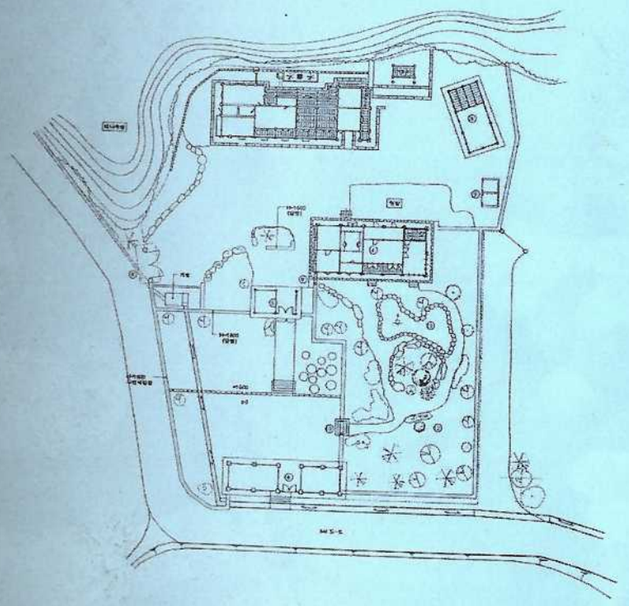
보성문화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공동 심포지움

호남 지역사와 문화연구

2012. 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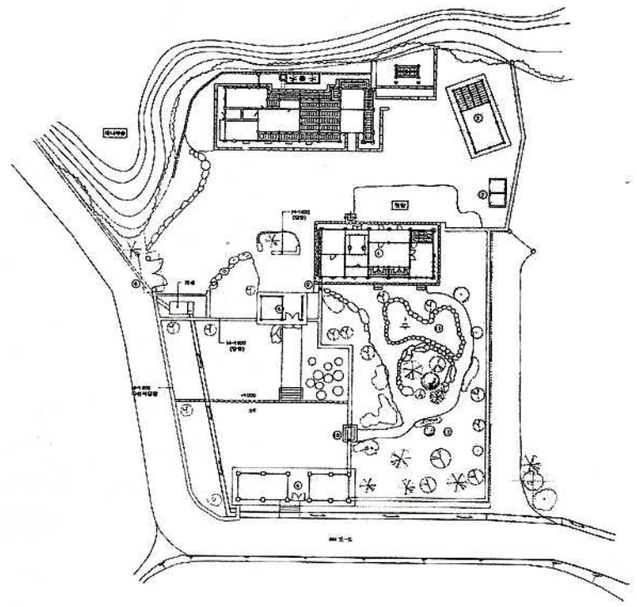
보성문화원
BOSEONG CULTURE CENTER

보성문화원·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공동 심포지움
호남 지역사와 문화연구
보성문화원

보성문화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공동 심포지움

호남 지역사와 문화연구

2012. 8. 23.



보성문화원
BOSEONG CULTURE CENTER

차 례

개회사 (13:30 ~ 14:00) : 보성문화원장 정 형 철
축 사 : 정종해 (보성군수), 박석무 (전 국회의원, 다산연구소), 이부영 (전 국회의원)

···· 제1세션 : 14.00-15.30 사회 이종범 (조선대) ····

임진왜란과 정경달 형제의 활동 ····· 3
김경숙 (조선대 역사학)

거북정의 남도 주거사적 의미 ····· 31
천득염 · 최정미 (전남대 건축학)

봉강 정해룡과 민족교육 ····· 57
오승용 (전남대 정치학)

···· 제2세션 : 15.40-17.10 사회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 ····

전후 냉전사법의 재해석 ····· 79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일본의 1960년대와 정훈상 사건 ····· 99
권혁태 (성공회대 일본학)

'탈냉전 · 분단'시대의 가족사쓰기 ····· 109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

···· 종합토론 : 17.20-18.30 사회 정근식(서울대) ····

토 론 : 김덕진 (광주교대), 서승 (일본 입명관대), 오동석 (아주대), 전갑생 (제노사이드연구회), 강성현 (서울대), 김귀옥 (한성대), 박동기 (남녘현대사연구회), 정희상 (기자)

···· 제1세션 : 14.00-15.30 사회 이종범 (조선대) ····

■ **임진왜란과 정경달 형제의 활동**

김경숙 (조선대 역사학)

■ **거북정의 남도 주거사적 의미**

천득염 · 최정미 (전남대 건축학)

■ **봉강 정해룡과 민족교육**

오승용 (전남대 정치학)

임진왜란과 丁景達 형제의 활동

金 景 淑
(조선대학교 사학과)

목 차

1. 머리말
2. 영광정씨가의 先代世系와 長興 입향
3. 정경달 형제의 임진왜란 활동
 1) 선산부사 정경달의 守土活動
 2) 兄弟子侄의 역할과 지원
4. 후손가의 활동과 忠義 계승
 1) 정경달 후손가의 3世忠義
 2) 정경영 후손가의 會寧移居
5. 맺음말

1. 머리말

임진왜란은 조선 사회에 일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일본군은 부산과 동래를 함락한 후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한 달도 되기 전에 도성을 함락하였고, 국왕은 의주까지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일본군의 진격로 상에 위치한 고을 수령들은 대부분 전의를 상실하고 고을을 버리고 도주하였고, 민인들은 의지할 곳을 상실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스스로 목숨을 지켜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산 부사 丁景達(1542~1602)의 守土 활동은 임진왜란 초기 지방관 및 관군의 활동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정경달은 자는 而晦, 호는 盤谷으로 전라도 장흥 반산리에 근거한 영광정씨가 출신이다. 그는 임진왜란 중 충무공 이순신의 종사관으로 활약하였고, 정유재란 때에는 근왕신으로 또는 명나라 사신 및 군대의 接伴使로서 활약한 인물이다. 이순신이 모함으로 투옥되었을 때 선조에게 '유능한 장군을 죽이면 국운이 위태롭다'고 직간하여 이순신의 석방을 강력히 주장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1]

그는 1591년(선조 24) 선산부사에 부임하여 1593년 8월 병으로 체직될 때까지 2년 동안 선산 부사를 역임하였다. 이에 따라 그와 그의 일가족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도 선산에서 임진왜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선산은 일본군의 진격로 상에 위치하여 전쟁 초기에 함락당하고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는 지방관으로서 끝까지 선산을 떠나지 않고 금오산 등 경내 일대를 옮겨다니며 유격전술로 일본군에 대항하여 큰 성

1)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해준, 「반산세고(반곡난중일기) 해제」(『반산세고』, 아세아문화사, 1987)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과를 거두었다. 그가 이순신에게 종사관으로 발탁된 것은 선산에서의 활약이 배경이 되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봉되었다.[1]

그의 선산에서의 행적은 『반곡난중일기』[2]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반곡난중일기』는 정경달의 친필일기로 19세기 초 다산 정약용의 수정 정리본이 현재 전하고 있다. 정약용은 이에 대하여 '서애의 징비록과 백사의 임진록이 상세하고 조정 대신으로서 전황의 전체를 조감한 점에서는 틀림없지만, 실제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고통을 견뎌낸 이 같은 기록은 국사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3]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반곡난중일기』를 중심으로 정경달과 그의 일가족의 선산 행적과 守土 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 초기 지방관 및 관군에 대한 無力과 무능함만 강조되어 온 시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 후손들의 활동과 행적을 추적함으로써 임진왜란의 충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어 가는지를 조선후기 호남 사림의 학문적 성향의 흐름과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영광정씨가의 先代世系와 長興 입향

영광정씨는 押海丁氏의 한 계파로 시조 丁德盛의 맏아들 丁烈道가 신라 헌안왕 때 冀城君(영광의 별칭)에 봉해진 데서 성관 명칭이 유래한다. 중시조는 고려말 丁贊(?~1364)이 靈城君(영광의 옛지명)에 봉해지자 그의 조부 丁晉을 1세로 삼은 데서 시작하였다. 영광정씨가의 실질적인 시조는 영성군 정찬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정찬은 고려말 문과에 급제하여 宣力佐理功臣 光祿大夫 領都僉議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시에 능하고 예를 중시하여 당대에 山西夫子라고 칭해졌다고 한다. 주요 행적을 보면, 1354년(공민왕 3) 홍건적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우고, 1363년에는 원나라에서 공민왕을 폐위하고 德興君을 세워 고려를 침입하자 西北面都安撫使에 임명되어 원의 군대를 물리쳤다. 그러나 휘하에 있던 睦忠의 무고를 당해 1364년(공민왕 13) 2월 5일 옥사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태조 대에 그의 절의를 추숭하여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하였다.[4]

고려말 정찬의 행적을 보면 중앙 조정에서 활약한 인물이지만 그의 묘는 경기도 廣州 豆毛浦에 위치하고, 그의 맏아들 光起의 묘 또한 두모포에 있다. 여말선초 영광정씨가의 근거지가 경기도 광주 인근이었음을 말해준다.[5] 정찬의 맏아들 계파는 광기 - 곤 - 극인 대를 내려오며 계속 광주 지역에 세거하였다. 「상춘곡」의 작가인 不憂軒 丁克仁(1401~1481)이 후에 처가를 따라 태인으로 옮겨갔지만 원래 광주 두모포 출신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 한국역대문집총서 2263, 『盤谷先生文集』, 경인문화사, 1997; 『盤山世稿』(盤谷亂中日記), 아세아문화사, 1987
3)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14, 題, 題盤谷丁公亂中日記
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靈光丁氏世系』, 1780 참조
5) 정찬의 부친 丁時胤 묘의 위치는 扞城인데, 이는 行扞城郡事를 역임하다가 난으로 순직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찬의 3자 계파는 경기도 광주에서 전라도 영광 지역으로 낙남하였다. 정찬의 3자 丁光永의 분묘는 失傳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없지만 광영의 두 아들 丁權과 丁原之는 분묘 위치가 모두 전라도 영광으로 바뀌고 있다. 영광 입향이 광영 대인지 그의 아들 대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이들 부자 대에 영광으로 낙남한 사실만은 확인할 있다. 이후 이 집안은 원지의 둘째아들 사평공 丁仲麟을 거쳐[6] 손자 丁允恭(?~1548)에 이르러 분묘 위치가 長興 長東面 馬峙로 다시한번 바뀌고 있다.
분묘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광정씨가 장흥에 입향한 것은 16세기 초반 훈도공 정윤공 대이다. 1598년(선조 31) 金梃이 찬한 정윤공의 아들 顔巷公 丁仁傑(1490~1553)의 묘갈명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확인할 수 있다.

> 증조부 원지는 생원으로 長興庫令을 역임하였다. 조부 중린은 司評이다. 부친 윤공은 춘천 훈도이다. 훈도공은 진성박씨와 혼인하여 처음으로 장흥 반산에 거주하였다. … (인걸은) 영광을 왕래하며 선대 분묘를 보살피는 것으로 업을 삼았다.[7]

이와 관련하여 1835년(헌종 1) 丁舜弼이 찬한 丁景英(1547~1616)의 묘갈명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증조 윤공이 부에 사는 박처의 딸과 혼인하여 (처변에) 그대로 살았다(娶府居朴處義女仍居焉)' 라고 기록되어 있다.[8]

이들 기록을 통해 볼 때 영광에 살던 정윤공이 장흥 사는 진성박씨 박처의의 딸과 혼인하여 장흥 반산의 처가 쪽으로 옮겨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정윤공은 장흥으로 이거한 이후에도 영광 지역에 남아있는 조상의 분묘를 보살피기 위하여 왕래하였고 이는 아들 인걸 대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손 丁修翼이 찬한 안항공 행장에서는 장흥에 정씨들이 살게 된 것은 정윤공 대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하였고,[9] 족보에서는 1900년 간행된 『영광정씨족보』경자보부터 '영광에서 (옮겨) 처음으로 장흥 반산에 살기 시작하였다(自靈光始居長興盤山)'고 수록함으로써 장흥 입향 시조를 정윤공으로 공인화하였다.[10]

이상의 통해 볼 때 영광정씨가는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근거하다가 전라도 영광을 거쳐 장흥으로 입향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전기 잦은 이거 현상을 보이는 현상은 남귀여가혼의 거주율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15, 16세기까지는 양측적관념의 가족친족관념질서가 강하게 남아있어 남귀여가혼에 의한 처가살이 거주 형태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김종직의 부친 김숙자는 박홍신의 사위가 되면서

6) 정중린의 분묘는 현재 보성군 兼白面 雪林里 宿虎後山에 위치하고 있다.
7) 『盤山世稿』 卷首, 「顔巷公墓碣銘」(한국역대문집총서 2263,『盤谷先生文集』, 경인문화사, 1997)
8) 丁舜弼, 「丁景英墓碣銘」, 1835
9) 『盤山世稿』 卷首, 「顔巷丁公行狀」(한국역대문집총서 2263,『盤谷先生文集』, 경인문화사, 1997)
10) 1780년(정조 4)에 편찬된 『靈光丁氏世系』(국립중앙도서관소장, No. 고2518-69-27)에서는 정원지의 맏아들 孟缶는 영광, 2자 仲麟은 장흥 盤山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정중린이 아들 정윤공을 따라 와서 거주한 것인지 정중린 대에 장흥 입향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족보상으로는 장흥 입향 기록이 1856년 『오성정씨족보(병진보)』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1900년 경자보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 그 사이에 문중 차원의 공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처가를 따라 밀양에 입향하였고, 회재 이언적의 부친 이번 또한 경주손씨 손소의 사위가 되면서 경주에 입향하였고, 학봉 김성일도 처가를 따라 안동 臨下에서 金溪里로 옮겨 정착하였다. 율곡 이이가 강릉 외가에서 출생한 것도 그 때문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영광정씨가의 경우에도 장흥 입향이 진성박씨와의 혼인이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 정광영 계파가 경기도 광주에서 전라도 영광으로 낙남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혼인이 주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추정해볼 수 있다.

16세기 초반 영광 지역에서 이거하여 장흥에 입향한 영광정씨가는 증손자대에 이르러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활약하여 1家2功臣을 배출함으로써 장흥의 望族으로 성장한다. 장흥 입향조 정윤공의 손자 丁夢鷹이 수원백씨 진사 白文孫의 딸과 혼인하여 6남 3녀를 두었는데, 이들 중 景達, 景英, 景俊, 景命 및 손자 鳴說, 得說, 昌說 등 7인의 兄弟子姪들이 선산부사 정경달을 중심으로 선산에서 공을 세웠던 것이다. 그 결과 정경달은 선무원종공신 1등, 정경명은 선무원종공신 3등에 봉해졌다. 다음 장에서는 정경달 형제들의 임진왜란 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도표 1> 장흥 영광정씨가의 世系

丁晉 - 時胤 - 贊(靈城君) - 光永 - 原之 - 仲麟 - 允恭(-1548) - 仁傑(1490-1553) - 夢鷹

夢鷹
- 景秀(早世) =竹山安氏
- 景達 =晋州鄭氏
  - 鳴說 - 南一, 瑞一, 履一
  - 1女
- 景彦 = 淸風金氏
  - 得說 - 台一(繼)
  - 相說(出)
  - 霖說 - 道一, 雲一, 德一, 純一
  - 雨說 - 震一
  - 1女
- 景英 =光山金氏
  - 昌說 - 兌一, 巽一, 乾一, 坤一
  - 5女
- 景俊 =麗興閔氏 - 晩說 - 貫一
- 景命 =先山金氏
  - 後說 - 遠一
  - 1女
- 女 金起海, 盧思信, 文希稷

3. 정경달 형제의 임진왜란 활동

1) 선산부사 정경달의 守土活動

① 分軍令과 善山 함락

16세기 이후 지방군은 制勝方略[11]의 分軍法에 의하여 군사를 동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경상우도에서는 관찰사 金晬(1537~1615)가 분군령을 내리고 김해 진관의 김해와 창원의 우병영을 중심으로 군사 동원이 진행되었다. 일본군이 초기에 부산, 동래를 점령하고 구로다가 인솔한 제3군이 김해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초기 대응으로서 진주진관 소속의 초계, 의령진의 병력이 김해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성주, 선산, 상주, 안동 등 중부 지역의 병력을 창원의 우병영으로 집결시켰다. 창원에는 경상우병사 曺大坤의 부대가 있었다.[12]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선산부사 정경달이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접한 것은 4월 15일, 성주 목사로부터 관찰사의 분군령을 접수한 때는 다음날인 4월 16일이었다. 다음날 그는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창원 우병영으로 출발하여 인동 약목에 이르러 신임 경상우병사 김성일을 만나고 18일 창원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19일 김해성이 함락되고, 정경달 부대는 4월 22일 선산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한편 고니시가 인솔한 일본군 제1군은 부산과 동래를 함락한 후 좌수영 - 기장 - 양산 - 밀양 - 대구 - 인동 - 선산을 거쳐 상주 - 조령 - 충주로 북상하고 있었다.[13] 일본군 제1군의 진격로 상에 위치한 선산은 결국 4월 24일 함락된다. 같은 날 상주까지 함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선군 1,000여명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14] 일본군의 파죽지세 앞에 경상도 지역의 수령들은 대부분 전의를 잃고 성을 버리고 도주하는 상황이었다. 1592년 6월 28일 경상도 관찰사 김수가 조정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다.

> 웅천현감 許鎰은 적이 경내를 침범하기도 전에 먼저 도주하였고 성주목사 李德悅은 성주 지경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판관 高覲은 젊은 무부로서 홀로 도피하였습니다. 개령현감 李希伋, 선산부사 丁景達, 상주목사 金澥, 판관 權吉, 문경현감 申吉元 등은 모두 다 도망가 숨어 적이 가는지 머무는지를 일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좌도의 동래·양산·밀양·청도·경산·대구·인동에서부터 우도의 선산·상주까지 一路가 이미 적의 소굴이 되었으며, 영산·창녕·현풍으로부터 우도의 성주·개령·금산까지의 일로도 역시 왜적들의 소굴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져 약탈합니다.[15]

전쟁 초기 경상도 지역 대부분이 일본군에 점령당하고 수령들도 대부분 고을을 포기하고 도피하여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비변사에서는 도망간 수령들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변방의 무관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죄를 주는 것 보다는 속히 본직에 복귀하여 임무를 살필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청하였다.[16]

---

11) 제승방략 : 병력을 동원하는 체제로서 분군법(分軍法)에 의해 유사시에 각 고을의 수령이 그 지방에 소속된 군사를 이끌고 본진(本鎭)을 떠나 배정된 방어지역으로 가서 중앙에서 파견된 도원수, 순변사, 방어사 등의 지휘를 받는 체제이다. 세조 때 완성된 지역단위 방어 체제인 진관체제가 붕괴되고 16세기 이후 중종 대 삼포왜란, 명종 대 을묘왜변을 겪으면서 시도된 전략으로, 후방 지역에는 군사가 없기 때문에 1차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뒤는 막을 길이 없는 전법이다. 임진왜란 초기에 패배의 한 원인이 되었다.

12) 임진왜란 발발 직전 3월 하순에 金誠一(1538~1593)이 신임 경상우병사로 임명되었으나, 아직 임지에 도착하지 않아 전임자인 조대곤의 지휘 아래 수행되고 있었다.

13)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영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임진왜란 항목

14) 이호준, 앞의 논문, 158쪽 참조

15) 『선조실록』 27권, 25년(1592) 6월 28일 병진

경상도 관찰사의 보고에 따르면 선산부사 정경달 또한 성을 버리고 도망가서 연락두절인 상태로 나타난다. 실제로 4월 24일 선산부가 일본군에 함락되자 정경달은 가솔들을 거느리고 인근의 산간 지역으로 도피하여 떠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5월 16일부터는 군대를 수습하여 일본군에 대항할 체제를 갖추고 가솔들을 무주로 보내 안전하게 피신시킨 후에 본격적인 유격전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경상도 관찰사의 보고는 선산이 함락된 직후 관찰사와 연락이 단절되고 가솔들과 도피생활을 하던 때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찰사와 다시 연락이 회복된 것은 『반곡난중일기』에 의하면 7월 초로 확인되고 있다.[17]

② 4寨 4都廳과 유격전

정경달은 5월 16일부터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許說, 金惟一 등을 시켜 흩어진 관군을 수습하는 등 1,000명을 募軍하여 금오산 아래에 진을 쳤다.[18] 이를 바탕으로 일본군과 결전하여 참수하였으나 아군의 피해 또한 속출하였다.[19]

이에 따라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완하여 5월 25일부터는 4寨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일본군에 정면으로 맞시는 것은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리적 요충지에 군대를 매복하였다가 낙오병을 치는 유격전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는 선산 북서쪽 水多寺에서 張·田 두 진사와 의논하여 4面에 軍寨를 설치하고 각각 將領 1인씩 정했다. 서채는 宋軫星, 동채는 朴思深, 남채는 許說, 海平寨는 崔弘儉을 배치하여 각각 군사를 이끌고 복병하다가 왜적을 포획하게 하였다.

4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산의 지형적 특성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6월 2일에는 4채를 4도청 체제로 다시한번 보완 조치를 취한다. 당시의 상황을 『반곡난중일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6) 『선조실록』 27권, 25년(1592) 6월 29일 정사
17) 『반곡난중일기』 1592년 7월 2일에 정경달의 보고에 대하여 관찰사가 '부사의 생존이 죽은 사람을 보는 듯하다. 다만 지난번 무주에 들아가 군령에 의거해 시행하였거니와 還官하여 토적하니 참으로 가상하다'는 回題를 보낸 기사가 실려 있다. 이 시기에 관찰사와의 연락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 『반곡난중일기』, 1592년 5월 16일
19) 『반곡난중일기』에 의하면 5월 16일에는 일본군 7급 아군 1인 사망, 17일에는 일본군 13급 아군 2인 사망, 18일에는 일본군 1급 아군 13인이 사망하였다.

<도표 2> 선산부의 지형[20]

동채 해평채는 강 동쪽이고, 서채·남채는 강 서쪽이다. 적의 군채가 중간에 있고 <결락> 강물도 불어 강 왼쪽 두 군채에 호령이 통하지 않는다. 경계를 넷으로 나누어 4도청을 설립하고 각각 영장 1인, 향소 1인, 복병장 6인, 유격장 18인을 두고 각자 군사를 이끌고 적이 오면 피하고 적이 돌아가면 진을 치고 혹은 논밭의 곡식을 수습하고 혹은 낙오병을 포획하게 하였다.[21]

선산부는 낙동강이 남북으로 흐르면서 고을이 동서로 나뉘어 있는 지형이었다. 이에 따라 처음 4채를 설치할 때에는 강동 지역에 동채와 해평채, 강서 지역에 서채와 남채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5월말 6월초는 장마철에 해당하여 강수량이 집중되는 때로 낙동강이 불어서 건너다니기가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의 주둔지가 그 중간에 위치하였다. 그 때문에 정경달이 위치한 본부와 4채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4채에 각각 都廳을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이다.

4도청은 영장을 중심으로 향소, 복병장, 유격장을 갖추고 적과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평소에는 생업을 위한 농사에 종사하고 유사시에는 일본군 낙오병을 토벌하는 방식으로 활동하였다. 정경달은 수시로 4채를 순시하면서 군인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였다.

> 6월 20일. 선산 4채를 순행하고 勦擊을 독려함. 나는 네 경계를 출입하며 4채 장령 및 향소를 불러 <결락> 4면의 군인들이 혹 모이고 혹 흩어지고 혹 合擊하고 혹 遊擊하였다. 또한 활과 화살을 갖추고 <결락> 요로에 설치하고 또한 함정을 파고 菱鐵을 설치하고 <결락> 곳곳에 복병을 배치하였다. 적의 머리를 바치는 자는 왜적의 물품으로 상주었다. 매일 머리를 바친 것이 5, 6급을 내려가지 않았다. 나는 군인 60, 용사 40, 旅帥 및 隊正 34으로 4진을 출입하며 검칙하였다.[22]

이를 통해 그가 친위대 134명을 거느리고 4채를 순시하며 복병 및 전투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23] 4채를 순시하던 중 개령 수령과 인동 수

2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872년 지방지도-선산부(http://kyujanggak.snu.ac.kr) 참조
21) 『반곡난중일기』, 1592년 6월 2일
22) 『반곡난중일기』, 1592년 6월 20일
23) 1592년 10월 23일 인동, 선산 왜적의 공격으로 비안 땅으로 도피할 때도 그를 따른 군인이 100여명이었다.(『반

령이 금오산 도선굴에 피신해 있으면서 그에게 오라는 편지를 보냈으나 거절하였다.[24] '수령들이 모두 멀리 도망갔는데 공만 홀로 왜적 소굴에 출입하고 있다. 왕도 이미 의주로 향하고 감사도 아직 通報하지 않는데 공의 공적을 누가 알아주겠소'라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는 왜적 토벌을 그만두지 않았다.[25]

정경달이 선산에서 세운 공적은 4채 4도청의 적극적인 운영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4채 규모도 확대되었다. 5월 금오산 아래에 진을 칠 때의 전체 군인 수가 1,000여명이었으므로, 4채의 규모는 각각 200~3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4개월 후인 10월 15일 동채 군인을 점고한 숫자가 600명, 17일 해평채에서 점고한 숫자가 정병 800명으로 확인되고 있다.[26] 초기에 비하여 2~3배 가량 규모가 확대되었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4도청 4채 운영의 구체적인 성과는 어떠하였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곡난중일기』의 기록을 근거로 정경달 본부 및 4도청 4채에서 일본군을 斬捕한 내역을 종합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도표 3> 임진왜란 초기 선산 관하 일본군 斬捕 현황

	4채		4도청		기타	계(실제[27])	② 斬級數[28]
	동채	해평채	남채	서채			
1592년 5월					37	37	
6월	1	2	6	8	12	29	
7월		24	9		3	36	
8월	18	22		7	6	53	48
9월		7	3		5	15	17
10월	5	1	2	11	6	25	21
11월		1	2	7	5	15	14
12월	2	2	3		2(140)[29]	9(140)	7
1593년 1월			1	3	19	23	20
2월	11	2	6	3		22	
3월	1		1	2		4	
4월			2		5	7	
합계(級)	38	61	35	41	100(240)	275(415)	127[165]

곡난중일기』) 정경달이 직접 거느리고 다닌 군대의 규모는 100여명 전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24) 『반곡난중일기』, 1592년 7월 5일

25) 『반곡난중일기』, 1592년 7월 17일

26) 『반곡난중일기』, 1592년 10월 15일, 17일. 1592년 12월 9일 정경달의 군사력은 4채를 모두 합하여 1,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기록되어 점고 숫자와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27) 『반곡난중일기』의 기록에 근거함. 1592년 6월, 1593년 1월 서·남채 협력 12級 및 2급, 1592년 12월 동·해채 협력 4급은 각각 半分함.

28) 「善山管下斬級記」(『반산세고』, 아세아문화사, 1987)의 기록에 근거함.

29) 4진이 합세하여 선산부 일본군을 火攻한 성과로 관찰사에게 140여명을 보고하였는데, 「선산관하참급기」에는 제외되어 있다. 이 숫자까지 합하면 정경달 관하의 참급수는 415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표에 의하면 1592년 5월~1593년 4월까지 12개월 동안 총 275(415)급을 참포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경달의 친위 부대 및 기타가 100급에 달하였지만 동채 38급, 해평채 61급, 남채 35급, 서채 41급 등 4채에서 175급을 참포하는 성과를 올린 점이 주목된다. 유격전술을 바탕으로 한 4채 4도청 운영이 효과를 거두고 일본군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1594년(선조 27) 11월 비변사에서 경상도 將官, 수령 및 의병장 등의 일본군 斬級 숫자를 보고한 啓本에 의하면, 정경달은 165급으로 전체 38인 중에서 5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인다.[30] 그런데 165급은 일기에 기록된 275급과는 차이가 크다. 165급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도표에서 '② 斬級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는 정경달이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공인받은 「善山管下斬級記」의 숫자로 기간이 1592년 8월~1593년 1월까지 6개월 동안에 한정되어 있다.[31] 1593년 1월 이후에는 명나라 군대가 일본군과 강화를 추진하면서 일본군을 참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와 관찰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32] 6개월 동안의 기간으로 한정하면 「선산관하참급기」와 「반곡난중일기」의 참급 숫자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3] 선산 관하의 참급수는 공식적으로 165급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일기의 기록에 근거하여 1592년 5~7월 및 보고가 금지된 1593년 2~4월의 숫자까지 모두 합한 275(415)급이 보다 실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③ 義兵大將과 竹峴6陣圖

4채 4도청 운영을 통한 토적 활동은 8월에 접어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일본군 斬捕 숫자가 경상도에서 가장 많다고 알려지게 된 것이다. 8월 11일 경상도 관찰사는 "적의 머리를 바친 것이 가장 많아 계문하여 논상할 것이다"는 공문을 보냈다.[34] 인근 고을에도 그의 명성이 알려지게 되어 9월 18일에는 상주 유생 10여인이 찾아와서 '공은 무슨 방법으로 적을 무수히 베는가요? 4채를 설립한 것은 실로 뛰어난 계략입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10월에는 상주 및 함창 유생들이 해당 고을 수령을 논죄할 것을 상소하면서 경내를 떠나지 않고 대항하는 선산 부사에 대해서는 칭송하기도 하였다.[35]

그는 복병 및 유격전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나아가 선산 및 인근 고을의 일본군을 대대적으로 토벌할 계획을 구상한다. 임진왜란 초기 선산의 일본군은 인동, 개령의 일본군들과 서로 봉화를 주고 받으며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세력은 선산 3,000명, 개령 6,000명, 인동 2,000명에 달하는 거대한

30) 「壬辰軍功策附」(『반산세고』, 아세아문화사, 1987)

31) 실제 참급숫자를 합하면 127급이나 기록상으로는 비변사 계문 숫자와 동일한 165급으로 표기되어 있다.

32) 정경달은 165급 외에도 활로 쏘아 죽인 자 49급을 합하면 204급, 여기에 1592년 6월의 참왜 30급을 추가로 더하면 모두 234급에 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33) 두 기록 사이의 미세한 차이는 관찰사가 참급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부패하는 등의 이유로 分等에서 제외시킨 부분이 있는 때문으로 보인다.

34) 『반곡난중일기』, 1592년 8월 11일

35) 『반곡난중일기』, 1592년 9월 18일, 10월 7일, 10일

규모였다.[36]

김성일의 召募有司로 활약한 鄭慶雲(1556~?)의 『孤臺日錄』에 의하면, 정경달이 일본군 토벌을 준비한 것은 1592년 9월부터 확인되고 있다.

> 9월 12일 무진. 선산부사 정경달이 본부에 주둔해 머물고 있는 적들을 습격하려는 마음을 먹고서 밤을 틈타 적을 벨 계획을 세웠다. 날짜를 정하고서 군사를 조련할 무렵에 왜적들이 잇달아 내려와 서로 힘을 합쳐 기세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습격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선산에 주둔하는 일본군을 습격할 거사일을 정하고 군사를 조련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일본군들이 북에서 계속 내려와 세력이 강해져서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는 경상좌도와 우도의 병사를 한데 모아 선산, 인동, 개령의 일본군을 일시에 토벌할 계획을 세웠다. 다음은 10월 초에 그가 경상우도 관찰사에게 제안한 내용이다.

> 일전에 관찰사에게 보고하기를 "선산, 개령, 인동 세 고을의 적들이 서로 도와주어 소탕하지 못하고 있다. 좌우도 병사를 합력하여 소탕하기를 청한다. 좌도 병사는 인동으로 들어가고, 우도 병사는 선산으로 들어가고 하도 및 호남 병사는 개령으로 들어가면 세 고을의 적을 하룻밤에 소탕할 수 있다."[37]

3官合擊 제안을 받은 경상우도 관찰사는 거사를 허락하고 경상좌도 관찰사 韓孝純(1543~1621)에게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효순은 1592년 10월 14일 정경달을 불러서 만나본 후에 합공을 동의하였다. 그런데 좌도 병사가 인동 대신 선산 공격을 맡고자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일본군에게는 援軍이 많아서 위험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38]

합공이 무산된 후에도 그는 일본군 토벌 계획을 계속 추진하여 그해 겨울에는 4채 병력을 모아 선산 일본군을 습격한다. 12월 13일 김유일과 의논하여 4진을 모아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선산성에 火攻을 감행한 것이다. 이 공격으로 일본군 막사 300여 칸이 불에 타고 말 13필이 죽고 군기 및 군량을 헤아릴 수 없이 소탕하였다. 며칠 후 관찰사에게 보고한 일본군 사망자 숫자는 140여명에 달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39]

그는 일련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인근 지역 의병 활동의 구심점으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의병장들이 찾아와 군대를 합하고 그의 지휘를 받기를 청하였다. 1592년 10월 2일에는 상주 의병 유생 7인이 찾아왔고, 4일에는 전적 이준이 찾아와서 자신의 의병과 합진을 원하였다. 11월 21일에는 상주 의병장 김각 등이 지휘를 받기를 청하였다. 12월 8일에는 정인서, 윤상빙 등 여러 유생들이 와서 휘하에 들어오기를 원하였고, 9일에는 황위가 와서 상주 의병이 영락하여 겨우 300이 남았다면서 합진을 청하였다.

경상도 관찰사는 그를 義兵 大將으로 삼고 열읍에 의병을 모집하는 임무를 맡겼다.[40] 각도의 관찰사들은 군량미를 제공하였다. 충청감사 50석, 전라감사 50석, 전라

36) 『반곡난중일기』, 1592년 12월 29일
37) 『반곡난중일기』, 1592년 10월 13일
38) 『반곡난중일기』, 1592년 1월 16일
39) 『반곡난중일기』, 1592년 12월 13일, 19일

도사 50석을 보냈고, 경상우감사는 수차례 계속 군량미를 보내고 있었다.[41]

의병들의 합세를 바탕으로 그는 일본군 토벌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1592년 12월 2일 평거리에 머물면서 선산부를 공격하기 위한 '竹峴6陣圖'를 작성하였다.[42] 그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12월 19일 충청좌도와 경상우도의 각관 및 의병장들이 대거 모여서 거사를 약속하였다.[43] 거사일은 1593년 1월 24일이었다. 그날 청리에 모인 각관 및 의병장들은 옥천 군수 조전장 선의문, 상주 목사 김해, 판관 정기룡, 영동 한명윤, 상주 의병장 김각 등이었다. 정경달은 부대를 나누어 선산부성을 사면에서 포위하였다. 그러나 일본군 쪽에서 공격 정보를 미리 알고 방어하는 바람에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44]

1593년에도 일본군 토벌 작전은 계속되었다. 그해 1월 경상도 관찰사는 그를 上道官軍大將兼義兵總大將으로 삼고, 선산, 상주, 함창, 문경의 관군 및 선산, 상주, 함창, 산양의 의병 등 8진 將領들을 모두 관장하게 하였다.[45] 이를 바탕으로 그는 3월에는 병사와 선산적을 토벌할 계획을 세웠으나 도중에 병사가 病死하여 결국 성사되지 못하고 말았다.[46]

그런데 4월에 접어들면서 관찰사 한효순으로부터 명군이 일본군과 강화하므로 왜적을 참하지 말라는 關文이 내려왔다.[47] 뿐만 아니라 그는 天軍接待都差使員에 임명되어 명나라 군대를 支供할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48] 그는 명군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한편 일본군과의 유격전을 병행하였다. 일본군의 압박을 당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일본군과의 유격전은 계속되었다.[49]

명나라 군대는 5월 11일 선산에 내려오고 다음날 12일 일본군은 선산에서 완전히 물러났다.[50] 그는 금오산 도선굴에 저장해 둔 곡식, 면포 등을 바탕으로 8월 5월 11일부터 체직될 때까지 명나라 군대를 지공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해 8월 그는 병으로 선산부사에서 체직되어 9월 3일 선산을 출발하고 10일 霜山 본가에 도착함으로써 선산에서의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1593년 4월 어느날 밤 그는 두견새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노래 한 곡을 불러 가슴 속 가득한 忠憤을 쏟아내었다. 한해 동안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본군에 대항한 그의 심정이 그대로 전해진다.

40) 『반곡난중일기』, 1592년 12월 23일
41) 『반곡난중일기』, 1592년 12월 9일
42) 『반곡난중일기』, 1592년 12월 2일
43) 『반곡난중일기』, 1592년 12월 19일
44) 『반곡난중일기』, 1593년 1월 24일
45) 『반곡난중일기』, 1593년 1월 15일
46) 『반곡난중일기』, 1593년 3월 4일, 7일, 9일, 11일, 16일
47) 『반곡난중일기』, 1593년 4월 6일
48) 『반곡난중일기』, 1593년 4월 23일
49) 『반곡난중일기』, 1593년 5월 7일, 8일
50) 『선조실록』 39권, 26년(1593) 6월 15일 무술

주거 못보련댜 우리님 못보련쟈
내야 주겨도 님이나 무ᄉᆞ코쟈
두견아 네 우름 근처라
눈을 계워 ᄒᆞ노라

死將不見麽 將吾主不見麽
縱饒我死了 吾主無事是所願
杜鵑汝哭須休了
叵耐目淚滿面[51]

④ 功臣 冊封과 평가

정경달은 선산부사로서의 활약과 공적을 인정받아 1605년(선조 28) 4월 宣武原從功臣 1등에 책봉되었다. 선무공신은 왜적을 정벌한 諸將들과 군량을 주청하러 간 사신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무공신 1등은 이순신·권율·원균, 2등은 신점·권응수·김시민·이정암·이억기, 3등은 정기원·권협·유충원 등 18인을 책봉하였고,[52] 선무원종공신은 전국적으로 9,600명을 책봉하였다. 다음은 선조가 선무원종공신들에게 내린 傳旨 내용이다.

> 국가가 어려움이 많아 안정되지 못하자 그대들이 이미 중흥시키는 일에 힘을 썼으니, 공훈을 작은 것일지라도 갚지 아니할 수 없기에 내가 이에 원종에 推恩하여, 옛 典章에 따라 새로운 의전을 성대히 거행한다. 생각건대 남쪽 왜적이 날뛰어 서쪽 지방으로 파천하였고 날뛰는 豺虎 때문에 참혹하게 종사가 몽진하였으며 산 넘고 물 건너는 고달픈 여로에 군신이 이슬 맞던 일을 차마 말하겠는가. 하늘이 이 나라를 중흥시키고자 부모 같은 중국이 우리를 구제해 주었고, 사람들이 그래도 고국을 떠받들고 대소 신료들이 노고를 잊어버려, 다행히도 난리를 평정하고 환궁하여 마침내 공훈을 책봉하고 鍾鼎에 새기었다. 그대들 경대부 및 사서인은 武弁을 선양하기도 하고 군수품을 돕기도 하였으며, 몽둥이를 들고 치달려 목숨을 바친 선비도 있었고 무기를 들고 싸워 적의 머리를 바친 이들도 있었다. 여기에 모두 기록하여 길이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 경중에 따라 일시의 공로를 구분하였으니 그대의 자손들은 만세토록 안락을 누릴 것이다. 이에 이를 교시하니 잘 알도록 하라.[53]

그의 선산부사로 활약한 공적은 후대인들도 주목하여 적을 방어하는 수령의 모범 사례로 높이 평가하였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은 『牧民心書』에서 외적의 침입을 당하였을 때 이에 대응하는 방책을 논한 '禦寇' 항목에 그의 사례를 수록하였다.[54]

> **지키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아 적이 경내를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임금을 저버리는 일이 된다. 추격하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중략> 정경달이 선산부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적군이 읍을 점령하여 물러가지 않았다. 그는 달아나 산골에 숨었다가 고을 백성과 장교·이속 들을 불러 모아 의논하여 4곳에 군채를 설치하였는데, 낙동강 동쪽에 둘, 서쪽에 둘이었다. 적이 중간을 차지해 있고 또 강물이 넘쳐흘러 강 동쪽의 2채에 명령이 통하지 못했다. 경내를 넷으로 나누어 4도청을 세우고 각기 장령 1인, 향소 1인, 복병장 6인, 유격장 18인을 두어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적이 쳐들어오면 피하고 돌아가면 다시 진을 쳐서 혹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혹 낙오된 적을 잡아 베고 노획한 바가 많았다. 적군이 그를 기필코 사로잡으려 했으나 끝내 잡히지 않았다. 이충무공이 순천 수영에 있을 때 그가 장수로서의 지략이 있음을 알고 불러서 종사관으로 삼았다.[55]

51) 『반곡난중일기』, 1593년 4월 4일
52) 『선조수정실록』 38권, 37년(1604) 6월 25일 갑진
53) 『선조실록』 186권, 38년(1605) 4월 16일 경신
54) 정약용은 강진 유배시절에 장흥의 정경달 관련 자료를 접하고 『반곡난중일기』를 직접 정리하고 題를 찬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경달의 선산 활약에 대해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정약용은 정씨가에서 『반산세고』를 편찬할 때에도 서문을 찬하였다. 題와 序文은 『다산시문선』에 수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정경달이 지방관으로서 1592년~1593년까지 선산에서 활동한 실상에 근거할 때, 임진왜란 초기 지방관 및 관군이 無力化하여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고을이 함락되고 재정비를 갖추기 이전 또는 관찰사와 연락이 회복되기 이전 등 한정된 기간의 상황을 묘사한 기록을 바탕으로 지방관 및 관군의 무능함을 다소 과장되게 확대한 측면이 없지 않다. 실제적으로는 정경달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찰사와 연락이 단절된 시기에도 초반의 혼란함을 수습하고 곧바로 일본군에 대항할 체제를 갖추어 유격전을 전개하고, 관찰사와 다시 연락망을 회복한 뒤에는 관찰사와의 보고 명령 체계 하에서 일본군 토벌 활동을 수행하는 등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지방관들이 상당수 존재하였을 것이다.[56] 정경달의 선산에서의 활약상은 임진왜란 초기 지방관 및 관군의 역할과 활동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2) 兄弟子侄의 역할과 지원

임진왜란 직전 정경달이 선산부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 처자식 및 형제자질 등의 일가족들도 그와 함께 선산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의 일가족은 예기치 못하게 전쟁의 고통과 피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정경달이 유격전으로 일본군에 대항할 때 적극 보좌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절에서는 정경달 일가족의 선산에서의 행적을 검토함으로써, 임진왜란 당시 지방관의 활약을 가능하게 한 가족친족의 역할과 지원 활동을 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정경달의 가족 관계는 6남 3녀 중의 둘째 아들이다. 그에게는 아들 鳴說(1566~1627) 등 1남 1녀와 손자 南一(1588~)이 있었다. 큰형 景秀(?~1577)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우 景彦의 둘째아들 相說(1566~?)을 계후자로 입양하였다. 3자 景彦(1545~1627)은 得說(1564~?).相說.霖說.雨說 등 4남 1녀를 두었고, 4자 景英(1547~1616)은 昌說(1579~1619) 등 1남 5녀를 두었다. 5자 景俊(1549~)은 외아들 晩說을 두었고, 6자 景命(1551~정유재란 순절)은 後說 등 1남 1녀를 두었다.[57] 이들 가운데 임진왜란 직전 선산에 머물고 있던 일가족은 정경달 처 진주정씨, 며느리 영광김씨(1563~1596), 손자 남일[58] 등의 처자식과 경영, 경준, 경명 등 3형제 및 조카 상열, 창열 등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쟁 초기 이들의 동향을 살펴보자. 선산 고을에 전쟁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4월

55) 정약용, 『여유당전서』 권5, 『목민심서』 권9, 兵典六條, 禦寇六條
56) 최근들어 임진왜란 초기 관군 및 지방관의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 『한국문화』 31, 2003; 이선희, 「임진왜란 시기 咸陽 守令의 전란대처-『孤臺日錄』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10, 2010;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2010
57) <도표 > 영광정씨 정경달가의 世系 참조
58) 정남일의 시문집『松隱集』 권2, 행장에 의하면, 그는 임진왜란 당시 6,7세에 불과하였는데 조부를 따라 선산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6, 7세의 어린 나이라면 모친의 슬하에 있었을 것이므로 그의 모친 영광정씨 또한 선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정경달은 지방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가족을 남겨 놓고 4運之法에 따라 군대를 인솔하고 창원으로 향하였다. 별다른 성과없이 22일 선산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우 경영과 경명이 일가족 모두 무사함을 알렸다.

그러나 다음날인 24일 선산부가 일본군에 함락되면서 가솔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전날 경명과 부녀자들은 상주로 도피하였으나 상주 또한 일본군에 함락되었다. 25일 아우 경영은 사내종 군산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피신하였다. 조카 창열과 聲日은 행방불명되어 종적을 찾을 수 없다가 다음날 아침 나타나서 '관비들과 산 밖으로 도피하여 겨우 죽음을 면했다'고 하였다. 그는 일단 五家里 金終弼 집으로 도피하여 가솔들과 멀리 도망갈 계획을 세웠다.[59]

그런데 29일 아들 명열과 조카 득열이 장흥 본가에서 찾아왔다. 명열은 부친이 부임한 1591년(선조 24)에는 모친 晋州鄭氏를 모시고 선산에 가서 지내다가 1592년 봄에 장흥 본가로 돌아가 있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부친이 사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사촌 아우 득열과 함께 용사 10여인을 모아 부친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급히 선산으로 향했던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상봉한 부자는 반가움과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서로 부여잡고 통곡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날 새벽 그는 가솔들과 함께 선산부의 동북쪽 無乙洞으로 피신하였다.[60]

그의 도피 생활은 5월 15일까지 계속되다가 16일에 이르러 군읍들을 수습하고 일본군에 대항하는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솔들을 거느리고 일본군에 대항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가솔들의 안전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했다. 이 시점에서 그는 관료로서의 국가에 대한 忠의 이념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가족 윤리가 충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는 선산에 함께 있던 형제자질들과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음의 기사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① 당시에 공의 아우 경영이 형을 따라 선산부에 있었는데 공에게 말하기를 "적세가 창궐하여 국운이 혼란한데, 형이 이미 몸을 나라에 허락하였으니 집안 일은 염려하지 말고 殉君으로 마음을 삼으시오. 무익하게 헛되이 죽는 것보다는 적을 죽이고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였다. 공이 눈물을 닦으며 말하기를 "내 뜻을 이미 결정하였다" 하였다. <중략> 가묘와 가솔들을 內從 金公喜가 다스리는 무주부로 보냈다. 妻孥弟侄들이 차마 헤어지지 못하고 옷을 잡고 길을 막으니 광경이 참혹하였다. 공이 위로하고 책망하기를 "적을 섬멸하면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지하에서 찾으라" 하였다.[61]
>
> ② (정경영은) 天放 劉好仁에게 수업하였다. 중형 참판공과 명성이 났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참판공이 선산을 지켰는데 공이 함께 방략을 도모하고 많은 계책을 세웠다. 적세가 몹시 핍박해오자 이에 가묘를 받들고 돌아오면서 참판공에게 말하기를 "형제처자 때문에 마음에 걸리지 말고 오로지 순국으로 마음을 삼으시오" 하였다.[62]

①은 정경달의 연보, ②는 정경영의 묘갈명 기록이다. 두 기록의 내용에 근거할 때,

59) 『반곡난중일기』, 1592년 4월 15일~26일
60) 『반곡난중일기』, 1592년 4월 29일; 정명열, 『霽巖集』, 行狀.年記 참조
61) 「盤谷年記」 行錄 (『반곡세고』, 아세아문화사, 1987, 335-336쪽)
62) 1835년(헌종 1) 7대손 丁舜弼이 찬한 정경영 묘갈명

아우 정경영이 스스로 집안일을 전담할 것을 자임하면서 형은 집안 걱정하지 말고 나라 일에 전념할 것을 제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충의 실현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가족 윤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형제가 각각 역할을 나누어 아우는 집안일을 전담하고 형은 관료로서 국가일에 전념하도록 정리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7일 아우 정경영은 가묘를 받들고 가솔들을 거느리고 귀향길에 올라 內從 金公喜가 수령으로 있는 무주로 출발하였다. 이 때 귀향길에 오른 일가족은 정경달의 처첩, 아들 명열, 며느리, 손자 남일 등이다. 상열 또한 장손으로서의 책임에 충실하기 위하여 가묘를 모시고 귀향 대열에 포함되었다. 정경달은 가솔들이 안전하게 귀향할 수 있도록 무주까지 배웅한 후[63] 유격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경준, 경명 등 두 아우와 조카들은 선산에 남아 그와 고락을 함께 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경달의 아들 명열은 모친을 모시고 장흥으로 돌아간 후에도 장흥과 선산을 왕래하며 모친 부양과 부친 보좌하는 일을 동시에 감당하였다. 그가 선산부사에서 체직된 1593년 8월까지 형제자질들은 선산과 장흥을 왕래하며 그를 보좌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막내아우 정경명은 이후 정유재란 때에 순절하여 선무원종공신 3등에 책봉됨으로써 정경달과 함께 1家2功臣의 명예를 이루었다.[64]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경달이 지방관으로서 선산에서 공적을 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兄弟子侄 등 가족 친족들의 역할 분담과 적극적인 지원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4. 후손가의 활동과 忠義 계승

1) 정경달 후손가의 3世忠義

정경달 6형제의 자손들은 장흥 및 보성 일대를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세거하고 있다. 장손가인 정경수 후손들은 반산리에서 古邑面을 거쳐 南面(오늘날 龍山面)으로 이거하였고, 2자 정경달 후손들은 현재까지 장흥 반산리에 세거하고 있다. 3자 정경언은 會寧面 陶唐里로 이거하였고, 4자 정경영.5자 정경준.6자 정경명은 회령면 봉동으로 이거하여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65]

이처럼 형제들이 모두 인근 지역으로 이거한 결과 현재 장흥 반산리는 정경달의 후손들만 홀로 남아 지키는 상황이 되었다. 이 집안은 정경달이 공신에 책봉되면서 반

63) 『반곡난중일기』, 1592년 6월 6일~13일
64) 보성 金日里에는 전라남도 기념물 114호로 지정된 팽나무 줄나무가 있다. 마을 앞 길이 155m의 둑에 팽나무 18그루, 느티나무 1그루가 한 줄로 줄지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충무공 막사에서 왜군과 싸워 공을 세운 바 있는 정경명이 충무공과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하여 심었다고 전해진다.
65) 용산 후손가에 소장된 연대미상의 가계 기록에 의하면 정경영은 고읍면 鶴橋里, 정경준은 회령면 來接里가 근거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경영의 분묘는 회령면 축동, 정경준은 학교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간에 이들 지역을 거친 것인지 후손들 중 일부 계파가 이들 지역으로 이거한 것인지는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상세히 확인할 수 없다.

산리 일대에 막대한 전답을 사패받아 사회경제적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가문의 사회적 위상이 격상하여 장흥의 望族을 이루고 번성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경달 대에 세운 忠義 전통은 자손들에게 대대로 계승되어갔다.

정경달의 아들 丁鳴說(1566~1627)은 자가 帝卿, 호는 霽巖으로 17세기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旅軒 張顯光(1554~1637)의 문인이다. 「師友錄」에 의하면 尹善道.安邦俊 등 539인이 수록되어 있어 그의 교유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66]

<도표 4> 정경달 형제의 세거지[67]

그는 정유재란 때에는 모친을 모시고 피난가기 위해 마련하였던 避難船을 이순신에게 제공하여 명량대첩에 일조함으로써 부친의 충의를 계승하였다.[68] 선조 말기인 1606년(선조 39) 증광시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였으나,[69] 곧이어 광해군이 즉위하고 대북 정권이 들어서 계축옥사 및 인목대비 폐비 논의 등으로 혼란한 조정을 보면서 '인륜이 무너진 세상에서 내가 어찌 벼슬을 하겠는가?'라며 벼슬에 뜻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이후 10여 년 동안 고향 반산에서 靑盲을 가탁하여 은거하며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

李爾瞻(1560~1623)이 그를 회유하기 위하여 세 번이나 집에 찾아왔으나 장님 행세를 하며 피하였다. 이이첨이 장님의 진위를 살피기 위하여 불에 달군 숯을 주는데도 그는 전혀 동요없이 받았고, 신발에 분뇨를 가득 담아 두었는데도 그는 거리낌없이 신발을 신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이첨은 진짜 장님이라며 돌아갔다고 한다. 그 후 인조반정(1622)이 일어나자 그는 즉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갖추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늘의 해가 다시 밝아지고 나의 눈도 밝아졌다'고 하였다.[70] 자신의 신념과 절의를 지키기 위한 10여년의 은거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忠義는 이괄의 난에서도 발휘된다. 인조반정 후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난을 일으키고 도성을 점령하고 왕과 조정이 피난길에 오르는 위급함이 사대부들에게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병 및 의곡을 모집하는 募義 활동이 전개되었다. 호남의 사족들은 영광 지역에서 출발하여 도내 전체로 확대되었는데, 전주, 김제, 나주, 영암, 장흥, 광주, 담양, 남원, 영광 등 9고을에 도회관을 설치하고 각 도회관마다 3-7개 고을을 속읍으로 배치하여 체계적인 모의 활동

66) 『霽巖集』 권4, 師友錄(『반산세고』, 아세아문화사, 1987)
6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872년 지방지도-장흥부(http://kyujanggak.snu.ac.kr) 참조
68) 『李忠武公全書』 권14, 附錄六, 紀實下, 馬氏家狀 참조
69) 『국조방목』(http://people.aks.ac.kr) 참조
70) 『霽巖集』 권2, 年記(『반산세고』, 아세아문화사, 1987)

이 추진되었다.[71] 정명열은 이들 9도회관 가운데 장흥의 都有司를 맡아서 장흥, 보성, 흥양, 낙안, 순천, 광양 등 6군현의 모의 활동을 총괄하였다.[72]

그해 겨울 그는 경상도 都事로 부임하였는데, 한번은 예전 부친이 임진왜란 때 활약한 선산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부친을 생각하며 감회에 젖어 시를 읊은 것이 현재 문집에 전하고 있다.

선산 길에서 읊다	善山路上吟
뿔나팔 소리 무슨 일인가? 슬픔을 견딜 수 없구나.	角聲何事最堪悲
일찍이 부친께서 경내에서 읊던 바라.	曾是先人境上吟
늙은 아전아 전쟁 일을 말하지 말라.	老吏莫言兵火事
지금까지도 마음이 주린 듯 허출하구나.	至今心膽怒如饑

2대에 걸친 충의 전통은 정명열의 손자 丁南一(1588~1640)에게도 그대로 전승되었다. 정남일은 자가 道謙, 호는 松隱으로 부친과 함께 장현광의 문인이다. 그는 장흥 반산리에서 태어나 임진왜란 당시에는 겨우 6, 7세에 불과하였는데, 조부를 따라 선산에 있다가 조부가 가속을 모두 무주로 보낼 때 부모를 따라 무주로 옮겨갔다.

광해군대에는 부친이 절의를 지키기 위하여 靑盲을 칭탁하여 10여 년 동안 은거생활을 할 때 그 옆에서 부친을 성심성의껏 보필하였다. 그 역시 광해군대에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다가 인조반정 직후 1624년(인조 2)에 37세의 늦은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이괄의 난 당시 부친이 모의 도유사로 활약할 때에도 부친을 따라다니며 보좌하였다. 다음은 당시 부자간의 대화 내용이다.

> 제암공이 만류하며 '왕과 부모는 모두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충과 효는 한가지 도리이다. 나는 나라 일로 죽으러 가니 너는 남아서 집안 일을 보살펴라' 하니, 공이 말하기를 '아버님이 이제 赴難하시는데 제가 어찌 집에 편히 있겠습니까? <중략> 만약 불행이 있으면 저 또한 함께 죽겠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동지 義士들과 함께 배종하고 갔다.[73]

부친이 스스로 국사를 자임하며 아들에게 집안일을 당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같이하는 義士를 모집하여 부친의 모의 활동을 적극 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병자호란 때에도 그는 鄕友 金確, 魏廷鳴 등과 함께 창의하여 의병을 모집하여 인조가 피난해 있는 남한산성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청주에 이르렀을 때 강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돌아와 스스로 호를 '松隱'이라 하고 평생 동안 은거하였다.

정남일은 1640년(인조 18) 9월 3일 반산리 집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시에 맏아들 曲川公 丁運復(1625~1686)에게 다음과 같이 유훈을 내렸다.

71) 김경숙, 「李适의 난과 호남모의록」, 『숭실사학』 28, 2012
7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호남모의록』, 1760 : 『호남절의록』, 1799
73) 『松隱集』 권2, 「行狀(丁修翼 撰)」(『반산세고』, 아세아문화사, 1987)

내가 불초하여 일찍 모친상을 당하였고 부친도 10여년간 청맹으로 지내시고 그 후에도 향년을 누리지 못하셨다. 나는 승중자로 후사 없는 죄가 큰데 너를 통해 가계를 이었다. 너는 모름지기 나의 뜻을 잘 체득하여 行身處事에 義字 하나로 힘쓰고 힘써서 너의 할아버지에게 누를 끼치지 말라.[74]

계후자 정운복에게 유훈으로 당부한 내용이 '義' 하나를 원칙으로 삼아 모든 행동과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자신이 평소에 부친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였다. 정명열은 항상 아들에게 부친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전하면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해야 할 일은 마땅히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면 시비가 어지럽지 않고 의리가 분명할 것이다. 평생도록 힘써 행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다.'[75]라고 당부하였다. 신념과 원칙에 근거하고 시비와 의리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는 조선사회의 시대 이념인 유교 윤리의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데, 정씨가에서는 3대를 이어오며 忠孝와 節義로 이를 구체화하였던 것이다.[76]

이 같이 3대를 이어오는 충의 전통은 조선후기 호남 사림의 학문적 성향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17세기 이후 호남 학문은 철학적인 이기심성론보다는 의리명분론에 바탕하는 節義와 忠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77] 이러한 흐름에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국난에 충의를 세운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한 『호남모의록』, 『호남절의록』 등이 간행되었다. 정명열-정남일 부자는 『호남모의록』과 『호남절의록』에 모두 이름이 올라 지금까지 그 행적이 전하고 있다.

19세기 초반에 이르면 丁修翼 등의 후손들이 이들 3대의 행적을 정리하고 다산 정약용의 서문을 받아 『盤山世稿』를 간행하였다. 정약용은 서문에서 이들 3대의 행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78]

반산 정씨는 장흥의 望族이다. 장흥은 옛날 백제의 남쪽 변방으로 훨씬 앞 세대에는 뛰어난 사람, 높은 벼슬아치가 적었는데, 정경달이 있어 집안을 일으켜 … 3대에 걸쳐 수립한 공이 우뚝하고 기이하지 않은가. … 내가 말한 賢豪·忠義의 선비와 그 시문을 묻히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 것이 여기에서 증험이 되지 않는가? 내가 그의 행장을 읽어보니, 정명열은 광해군 때를 당하여 스스로 청맹이라 칭계하고 10년 동안 벼슬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 선조 月軒公이 연산군 때를 만나서 행한 일과 전후가 똑같은 법도이다. 월헌공의 글도 4대를 한데 모아 일찍이 영조의 표창과 칭찬을 받았으니 어찌 그다지도 서로 비슷한가. 내가 여기에 거듭 느끼는 바가 있다.[79]

정약용은 忠義之士의 행적과 시문은 묻히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를 바로 『반산세고』에서 징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3대를 충의지사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74) 『松隱集』 권2, 「行狀(丁修翼 撰)」(『반산세고』, 아세아문화사, 1987)
75) 『霽巖集』 권3, 「行狀(丁修翼 撰)」(『반산세고』, 아세아문화사, 1987)
76) 정경달 - 정명열 - 정남일로 이어지는 3대의 忠義를 기리기 위하여 1714년(숙종 40) 장흥지역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장흥 반산리에 盤谿祠를 건립하였다. 이는 고종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으나 이후 복설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안항공 정윤공, 정경달, 정명열, 정남일, 이순신, 林英立 등 5인을 配享하고 있다.
77)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참조
78) 용산 후손가에는 생원시에 입격한 丁道夢의 試券이 소장되어 있는데, 정약용이 강진 유배시절에 관산에 방문하여 시권을 보고 '無識免'이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후손가에 전해오고 있다. 이를 볼 때 정약용이 『반곡난중일기』를 정리하여 서문을 쓰고, 『반산세고』의 서문까지 찬하는 등 정씨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배경에는 유배시절 정씨가와의 왕래 및 교유가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79) 『다산시문집』 권13, 序, 盤山丁氏世稿序

것이다. 특히 정명열의 10년 은거생활을 연산군대 갑자사화에 피화당한 자신의 선조 월헌공 丁壽崗(1454~1527)에 비교하며 더욱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였다. 정씨가 3대에 걸친 충의 행적은 후대 사람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丁景英 후손가의 會寧 移居

정경달의 둘째 아우 八溪公 정경영은 장흥 반산리를 떠나 회령면 봉동(오늘날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으로 이거하였다. 그 외에도 정경언, 정경준, 정경명 등이 모두 회령면으로 이거하여 6형제 가운데 4형제가 회령면에 정착하였다. 이들이 회령으로 옮긴 계기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16세기 다른 사대부가와 마찬가지로 혼인을 계기로 처가쪽으로 이거하였을 가능성이다. 그런데 정경영은 광산김씨 金倫의 딸과 혼인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처가의 거주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둘째는 회령면에 정씨가의 물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곡난중일기』의 기록이 주목된다.

(1593년) 9월 초3일 선산으로 출발하였다. 초10일 霜山 본가에 도착하였다. 10월 會寧 別墅로 옮겨 병을 조리하였다.

정경달이 병으로 선산부사에서 체직되어 1593년 9월 10일 장흥의 霜山 본가로 돌아왔는데, 다음 달에 요양을 위해 회령 별서로 옮겼다는 내용이다. 별서는 대체로 휴양이나 접빈객을 위한 별장을 의미하는데, 여말선초 관료층의 일시적 퇴거처 또는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농경지가 부속되는 등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되었다.[80] 이에 따라 조선시대 별서는 거주지에서 떨어져 있는 田莊을 경영하기 위해 현지에 별도로 마련한 농장의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회령면 별서의 존재는 영광 정씨가의 토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근거지가 회령면에 별서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경영이 회령면으로 이거한 계기는 정씨가의 별서를 토대로 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회령에 입향한 정경영 후손들은 창열 - 손일 - 운흥 … 각수 - 종익 - 해룡 - 득상 등 15대를 이어가며 오늘날까지 세거하고 있다. 정경영의 맏아들 정창열(1579~1619)은 行誼文章으로 명성이 높아 韓浚謙(1557~1627)이 전라도 관찰사로 왔다가 그의 文行을 듣고 찾아와 "남쪽 고을 높은 선비는 정아무개 한사람 뿐이다(南州高士丁某一人而已)"라고 칭송하였다고 한다.[81]

이 집안은 중간에 후사가 단절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18세기 龜亭公 丁道三(1734~1793)이 청풍김씨 통덕랑 潤宅의 딸(1733~1755/1815)과 혼인하였는데 후사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1774년(영조 50) 정경달의 후손 丁道仁의 셋째

80) 이정호, 「여말선초 京第, 別墅, 鄕第의 조성과 생활공간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25, 2008 참조
81) 1835년(헌종 1) 6대손 丁以翊이 찬한 묘갈명 참조

아들 八興을 양자로 들여 가계를 계승하였다. 다음은 정도인의 처 김씨가 정도삼에게 팔흥을 양자로 허여하는 문서이다.

건륭 39년 갑오 2월 초2일 남편의 재종제 유학 정도삼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은 남편의 재종제 도삼이 누대 봉사손으로 나이 40이 넘었는데 아직 자녀가 없어 그 외로운 사정을 보니 가련하다. 이제 나의 셋째아들 팔흥으로 입후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와서 청하는데 至親의 도리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門議에 따라 부득이 허여한다. 잘 수양하여 영원히 承嗣하게 되면 천만 다행일 것이다.

與主 故 丁道仁 妻 金氏(圖署)
門長 남편 동성6촌형 丁道重(수결)
證 남편 동성4촌아우 丁道赫(수결)
丁道遹(수결)
證保 남편 동성7촌조카 丁昊弼(수결)
筆 남편 동성7촌조카 丁斗弼(수결)

정팔흥은 입후 후에 丁允弼(1760~1828)로 개명하고 정도인의 가계를 계승하였다. 팔흥이 정경영 후손가로 양자들면서 이 집안은 정경달의 혈손으로 가계 계승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윤필은 양자로서의 책임에 충실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부모를 섬기는데 극진하게 정성을 다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처 금성오씨 馹相의 딸(1758~1796) 및 후처 수원백씨 鴻逵의 딸(1779~1831)과 혼인하여 修翰, 修永, 修五 및 李元赫妻, 朴啓漢妻, 李在遠妻, 曺光燦妻 등 3남 4녀를 둠으로써 절손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문의 번성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이 집안은 정윤필의 증손자 丁嬅(1826~1851)에 이르러 열녀를 배출함으로써 忠義 전통에 孝烈이 더해져서 성리학의 기본 윤리 忠孝烈을 모두 갖추게 된다. 열녀는 정혁의 처 광주이씨(1825~1851)로 전라감사 李世貞의 9세손이며 李鎭五의 딸이다. 그녀는 나이 겨우 26세 때인 1851년(철종 2) 1월 14일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스스로 남편의 斂具를 갖춘 후에 다음날 후원의 果木에 목을 매고 下從하였다. 그녀의 열행을 기리기 위하여 문중 사람들 뿐만 아니라 회령면 사람들, 장흥 유생들, 전라도 유생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에 所志를 올려 정려문을 세울 것을 요청하였다. 30여 년 동안 지속적인 정소활동 끝에 1880년(고종 17) 나수 유생 奇在鉉 능의 擊錚을 계기로 그해 11월 정려 입안이 발급되고 정려문이 세워지기에 이르렀다.

<도표 5> 정혁 처 광주이씨 정려 추진 과정[82]

연대	呈訴人	聯名人	呈訴官	題音
1851.1.21	회령면 동산리 화민	김종훈, 노규문, 선시만 등 8인	장흥부사	鄕論博採后擧論事
1851.1.22	회령면중 화민	문익행, 선식, 위의조 등 13인	장흥부사	博採計料事
1851.1	회령 화민	유학 정수희, 정이기, 정창학 등 정씨 39인(정씨일족)	장흥부사	姑俟博採公議
1851.2.1	화민	임작, 김기석, 백회수 등 33인	장흥부사	從當量處向事
1851.2.10	장흥 유생	임작, 김흡, 정손충 등 29인	암행어사	姑俟向事
1857.10.9	장흥 유생	김기석, 백회수, 이동진 등 31인	암행어사	詳採量處事
1877.11	장흥 유생	고언주, 백기전, 문학수 등 16인	암행어사	公議所在當有褒揚之期事
壬子.8.28	전라도 유생	보성 박성원, 나주 양찬영, 능주 김기하 등 28고을 유생	예조판서	惟俟道啓向事
1880.10.29	전라도 유생	나주 기재현, 장성 김경환, 창평 정주원 등 24인	예조판서	旣以天陛登聞
1880.11	예조입안			

정혁과 처 광주이씨가 25, 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결과 이 집안은 열녀를 배출하는 명예와 동시에 다시한번 절손의 위기에 처하였다. 그러나 정혁의 아우인 丁炫의 맏아들 丁珏壽(1864~1936)를 양자 들여 가계를 계승하고 가문의 번성을 맞게 된다. 『영광정씨족보』에서는 정각수(1864~193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매일 의관을 정제하고 빈객을 접대하였다. 항상 집에 객이 가득하였으나 싫은 기색이 없었고 家內百口였지만 항상 화락하였다.[83]

여기에서 '家內百口'라는 구절이 주목되는데, 집안에 가솔 및 빈객을 포함하여 1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문의 번성을 다소 과장해서 표현한 것으로 여기에는 상당한 정도의 家産이 뒷받침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각수대의 가산은 어디에서 유래하였을까? 전통시대에는 경제 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의 길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대부가의 가산은 당대에 재물을 축적하기보다는 선대부터 유래하는 가산에 의지하는 경향이 컸다. 정씨가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1697년(숙종 23) 丁運昇(1635~)이 자녀 3남매에게 재산을 상속한 분재기는 정각수 선대의 가산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정운승은 정경영의 손자인 정손일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늦게 혼인하여 두 아들을 두었으나 모두 일찍 사망하고 자식이 없다

82) 정경영 후손가 소장 『旌閭狀錄』 참조
8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영광정씨족보』(경자보), 1938

가 늘그막에 딸 둘을 얻었다. 그러나 딸들에게 가계를 계승할 수 없어 형 정운흥의 둘째 아들 羽南(1677~)을 양자로 들였다. 그리고 63세가 되던 1697년 2월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양자와 두 딸 등 3남매에게 재산을 상속하였다. 분재 당시 정우남의 나이는 20세였다. 분재 내역을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84]

<도표 6> 1697년 정운승의 養子兩女處 分財 내역

상속인 \ 分財件		논	밭	노	비	비고
承重 및 祭位	承重位	4마지기 17복	19마지기 39복 6속	1	1	
	亡子祭位	3마지기 14복 5속				
	兩亡弟祭位	□마지기 24복 3속				논밭 미상
	합계	7마지기 31복 5속	19마지기 39복 6속			
各衿	養子 羽南	12마지기 36복 6속	23마지기 26복 6속		2	
	長女 崔发妻	10마지기 43복 7속	15마지기 36복 8속		2	
	末女 張漢大妻	9마지기 28복 6속	14마지기 27복 1속		2	
합계		38마지기 140복 4속	71마지기 130복 1속	1	7	妻邊逃亡奴婢遺漏

도표에 의하면 17세기 후반 정운승의 가산 규모는 노비 8구 이상, 논 38마지기 1결 40복 4속, 밭 71마지기 1결 30복 1속, 미상 24복 3속 등으로 전답이 109마지기 2결 70복 5속에 달한다. 보성 지역에서는 1마지기가 300평이므로 109마지기는 32,700평에 달하는 규모이다. 전답의 소재지는 거의 파악할 수 없지만 회령면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장녀의 몫 가운데 강진 茶山員이 보이고 있어 강진 지역에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운승 대의 가산 규모는 조선후기 토지소유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일까? 1673년(현종 14) 해남윤씨 윤인미 5남매의 화회문기에 의하면 이 집안의 당시 가산 규모는 노비 538구 이상, 전답 735마지기 이상으로 정운승의 가산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하다.[85] 해남윤씨가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부호로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조선시대 일반적인 사대부가의 가산 규모는 오히려 정운승 쪽에 가까울 것이다.

학계에서는 조선후기 1결 이상의 전답을 소유한 田主를 富農으로 분류하고 있다. 1720년(숙종 46)의 경자양안을 통해 17~18세기 경상도 용궁현의 토지소유규모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1결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10~15%에 불과하고 25부 미만의 영세한 토지소유자가 절반이 넘게 나타난다.[86]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2결 70복 5속에 이르는 정운승의 전답 소유 규모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운승의 가산

84) 보성 영광정씨가 소장, 「1697년 丁運昇養子兩女處許與文記」
85) 안승준, 「16-18세기 해남윤씨가문의 토지·노비 소유실태와 경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7
86) 김건태, 「17-18세기 전답소유규모의 영세화와 양반층의 대응」, 『한국사학보』 9, 2000, 65쪽 [표 3] 참조

규모를 고려할 때, 장자 중심의 종법질서가 확립된 조선후기 사회에서 정운승의 형이자 종손가인 丁運興(1632~1694) 대의 가산 규모 또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종손가에 남아 전하고 있는 호구자료를 통해 정운흥~정각수에 이르는 240년 동안의 노비 소유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도표 7> 회령 영광정씨가의 노비 소유 현황[87]

연대	호주	나이	노	비	미상	합계
1669	丁運興	48	10	12		22
1687	丁運興	66	7(2)	12(4)		19(6)
1699	丁羽瑞	52	5(2)	10(1)		15(3)
1747	丁載赫	56	4(2)	3(1)		7(3)
1774	丁道三	41	5(3)	5(2)		10(5)
1789	丁道三	56	11(1)	13	4	28(1)
1798	丁允弼	39	10(1)	12	4	26(1)
1822	丁允弼	63	6	14(3)	4	24(3)
1831	丁昌吉	28	8	13(3)	4	25(3)
1840	丁昌吉	37	3(1)	5		8(1)
1882	丁炫[88]	52	4	5		9
1891	丁 炫	61	2	1		3
1905	丁珏壽	42		2		2
1907	丁珏壽	44				

도표를 통해 정경영의 증손자인 정운흥은 1669년(48세) 때에 노 10, 비 12 등 총 22구의 노비를 소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아우 정운승이 1697년 자녀들에게 분재한 노비 총수가 8구인 것과 비교하면 2~3배 가량 많은 수치이다. 이후 정우서 대(1699년) 15구, 정재혁(1747년) 7구, 정도삼(1789년) 28구, 정윤필(1798년) 29구, 정창길(1831년) 25구 등 200년 가까이 변함없이 20여구를 유지하고 있다.

19세기 이후 정창길 대부터 10구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은 소유규모의 축소로 볼 수 없다. 이는 18세기 후반이후 호구 정책의 부실화에 따라 호구단자에도 소유 노비를 모두 기재하지 않고 가내 사환 노비 몇 구만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호구단자 기재 방식의 변화가 이 집안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종합할 때 정경영 후손가는 정각수 대에 이르기까지 200여년 동안 노비 20여구, 전답 수백 마지기의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남윤씨가와 같은 대부호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에서 사대부가로서의 家格을 유지하고 활동

87) ( )는 도망노비 숫자임. 회령 영광정씨가에는 현재 호구자료 40건이 전하고 있다.
88) 丁炫은 焯(1831년 호구) → 翰然(1852) → 賢奎(1855) → 炫(1861) 등으로 수차례 개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기에는 충분한 물적 토대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도표 8> 정경영 후손가의 世系

巽一 ┬ 運興 ┬ 羽瑞 ┬ 載赫 ┬ 道三(龜亭公) ─ 允弼(繼) ┬ 修翰
=長興馬氏 ├=豊川盧氏 ├=羅州吳氏 ├=晋州姜氏 ├=淸風金氏 =錦城吳氏 ├=長興馬氏
├=仁川李氏 ├=先山盧氏 └ 載復 ├ 女 白宗海 =水原白氏 ├=廣州李氏
├=慶州金氏 └ 羽南(出) └ 1女 ├ 修運(出)
├ 運昇 ├ 修永
└ 1女 ├ 修五
└ 4女
修翰 ┬ 昌吉 ┬ 燉 ┬ 珏壽(繼) ┬ 鍾翊 ┬ 海龍 ┬ 得相
├=靈光金氏 ├=廣州李氏 ├=海南尹氏 ├=海南尹氏 ├=珍原朴氏 ├ 哲相
├ 昌行 │ └ 1女 ├ 鍾八 └ 2女 ├ 建相
├ 昌玄 └ 炫 ┬ 珏壽(出) ├ 鍾希 ├ 吉相
├ 昌皡(出) ├ 璨壽 └ 3女 ├ 鶴相
└ 昌堉 ├ 璀壽 └ 5女
└ 3女

4. 맺음말

이상에서 임진왜란 때 선산부사를 지낸 정경달 형제의 활동과 그 후손들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영광정씨가는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근거하다가 전라도 영광을 거쳐 상흥으로 입향한 십안이다. 입향 시기는 16세기 조반으로 정윤공이 진성박씨와의 혼인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증손자대에 이르러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활약한 결과 정경달.정경명 등 1家2功臣을 배출함으로써 장흥의 望族으로 성장하였다.

정경달은 1591년 선산부사에 부임하여 일가족들과 함께 선산에서 임진왜란을 경험하였다. 일본군의 진격로 상에 위치한 선산이 4월 24일 함락되자 그는 일가족을 거느리고 인근 산간 지역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5월 중순부터는 군대를 모아 4채 4도청 체제를 갖추고 일본군에 유격전으로 대항하기 시작한다. 관찰사와의 연락이 단절되어 도망 수령으로 조정에 보고되는 순간에도 사실상 그는 일본군에 대항하고 있었다.

4채 4도청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토적 활동 결과 1592년~1593년 4월까지 일본군을 斬捕한 숫자가 415級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활약은 인근 고을에 알려지게 되어 인근 지역 의병장들이 합세하고, 경상도 관찰사는 그를 의병대장에 임명하여 의병 모집의 임무를 맡겼다. 하삼도의 관찰사 및 각관에서 군량미를 지원하

였다. 1593년 4월 이후로는 명나라 군대를 지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해 8월 병으로 체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선산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605년(선조 28) 宣武原從功臣 1등에 책봉되었고, 19세기 초반 다산 정약용은 적을 방어하는 수령의 모범 사례로 높이 평가하여 『목민심서』 '禦寇' 항목에 그의 사례를 수록하였다.

그가 선산에서 공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兄弟子侄들의 역할 분담과 지원 활동이 바탕이 되었다. 그가 선산 함락 초기의 혼란함을 수습하고 일본군에 대항할 체제를 갖추었으나 일가족의 안전한 도피가 문제시되었다. 국가에 대한 忠義 이념과 가장으로서의 가족 윤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형제자질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아우는 일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는 선산에서 토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후 형제자질들은 선산과 장흥을 왕래하며 그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경달 형제의 자손들은 장흥 및 보성 일대를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세거하고 있다. 장손가인 정경수 후손들은 반산리에서 古邑面을 거쳐 南面(오늘날 龍山面)으로 이거하였고, 2자 정경달 후손들은 현재까지 장흥 반산리에 세거하고 있다. 3자 정경언은 會寧面 陶唐里로 이거하였고, 4자 정경영.5자 정경준.6자 정경명은 회령면 봉동으로 이거하여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

정경달 후손가는 공신 책봉으로 막대한 전답을 사패받아 사회경제적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가문의 사회적 위상이 격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경달이 세운 忠義 전통은 자손들에게 대대로 계승되어갔다. 아들 정명열은 정유재란 때에는 이순신에게 避難船을 제공하여 명량대첩에 일조하였다. 광해군 대에는 10여 년 동안 靑盲을 가탁하여 은거하였고, 인조 대 이괄의 난 때에는 募義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장흥 都有司로서 장흥, 보성, 흥양, 낙안, 순천, 광양 등 6군현의 모의 활동을 총괄하였다. 손자 정남일 또한 광해군 대 및 이괄의 난 당시 부친을 옆에서 보좌하였고, 병자호란 때에는 鄕友들과 창의하여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들의 행적은 『호남모의록』 및 『호남절의록』에 이름이 올라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한편 정경영 후손가는 정씨가의 별서가 있는 장흥 회령면(오늘날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으로 이거하여 오늘날까지 세거하고 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열녀(정혁 처 광주이씨)를 배출함으로써 忠義 전통에 孝烈이 더해져서 성리학의 기본 윤리 忠孝烈을 모두 갖추게 된다. 이 집안은 17세기 정운흥에서 19세기 정각수 대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 동안 노비 20여구, 전답 수백 마지기의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해남윤씨가와 같은 대부호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에서 사대부가로서의 家格을 유지하고 활동하기에는 충분한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丁珏壽(1864~1936) 대에 이르면 '家內百口'라고 하듯이 집안에 가솔 및 빈객을 포함하여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사회 경제적 위상과 가문의 번성기를 이루었다.

<참고문헌>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참조

김강식,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도서출판 혜안, 2001

김건태, 「17-18세기 전답소유규모의 영세화와 양반층의 대응」, 『한국사학보』 9, 2000

김경숙, 「李适의 난과 호남모의록」, 『숭실사학』 28, 2012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 『한국문화』 31, 2003

민덕기, 「임진왜란 초기의 전개상황과 그 배경」, 『전북사학』 39, 2011

송정현, 「壬辰倭亂論; 官軍과 義兵의 역할 문제」, 『전북사학』 8, 1994

안승준, 「16-18세기 해남윤씨가문의 토지.노비 소유실태와 경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7

이선희, 「임진왜란 시기 咸陽 守令의 전란대처-『孤臺日錄』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10, 2010

이정호, 「여말선초 京第, 別墅, 鄕第의 조성과 생활공간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25, 2008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2010

장학근, 「壬辰倭亂期 官軍의 活躍」, 『한국사론』 22, 국사편찬위원회, 1992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 아세아문화사, 2011

한명기, 「임진왜란과 명나라 군대」, 『역사비평』 54, 2001

<부록 1> 『盤谷亂中日記』의 斬倭 기록

날짜		首級數	날짜		首級數
1592.5.16		7	1592. 10.5	동채장	2
5.17		13	10.6	서채	7
5.18		1	10.10	남채장	2
5.19	최홍검, 김□□	7	10.10		1
5.20	윤충걸	1	10.11	서채장	3
5.21	박귀동 등	3	10.18	서채	1
5.26	김인개 등	3	10.20	해평채	1
5.29	店人	2	10.21		5
6.4	서남채	12	10.26	동채	3
6.5		5	11.1	복병포획	파다
6.21	병장 김복룡	1	11.2		2
6.22	동면 복병장	1	11.5	서채	4
6.23	해평채	2	11.6		3
6.23	김연봉 등	5	11.12	해평채	1
6.24	서채	2	11.22	남채	2
6.26	동채	1	11.26	서채장	3
7.7	남채	3	12.4	죽현복병	2
7.12	해평도청	6	12.11	남채	3
7.18	해평도청	6	12.13	선산부공격	140 전후
7.22	해평채	12	12.23	동채, 해평채	4
7.28	남채	6	1593.1.5	남채, 서채	2
7.29	군관	1	1.7	상주의병부장	12 이상
7.30	군관	2	1.18		3
8.1	해평채	12	1.20	복병 김유일	3
8.3	군관	3	1.21	서채장	2
8.6	해평장 최홍검	6	1.25		1
8.13		2	2.2	동채	3
8.15	동채	8	2.5	서채	3
8.16		1	2.7	남채	5
8.18	동채	3	2.14	동채, 복병	5
8.23	서채	7	2.19	동채	3
8.27	동채	7	2.21	남채	1
8.29	해평채	4	2.25	해평장 최홍검	2
9.4	해평채	7	3.18	남채	1
9.6		2	3.21	동채	1
9.8		2	3.24	서채	2
9.15	남채	3	4.6	김유일 등	5
9.15		1	4.9	남채장	2
합계		170	합계		245
총합 415級					

<부록 2> 『반곡난중일기』의 정경달 兄弟子侄에 대한 기록

	兄弟			子侄			
	景英	景俊	景會	相說	鳴說	得說	昌說
1592.4.15	선산	선산	선산	선산	장흥	장흥	선산
4.22	일카 무사함		일가 무사함				
4.25	산으로 피신		상주 피신				행방불명
4.29					사망소문듣고 찾아옴	사망소문듣고 찾아옴	
6.7-9	처첩, 아들 명열, 며느리(?), 손자 남일 등 처자식 및 경영, 상열 등 弟侄을 무주로 보냄						
6.13			철옥재궁 숙박				
6.17			병이 남				
6.20						조카가 백현에 머뭄	
1593.1.10					선산에 옴		
1.15			귀향				
2.24		병부 잃어버림			兵符 찾아옴		
3.7					병사 방문		
3.25					귀향		
3.26		병을 위로					
4.19			선산에 옴				
4.22		귀향					
9.3	정경달 체직되어 고향으로 향함						

* ▭는 선산 활동기로 추정

거북정(龜亭)[1]의 南道住居史的 의미

천 득 염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최 정 미
(전남대 대학원)

1. 거북정(龜亭)의 연혁과 옛 모습 추정

정손일이 현 주소지인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 677번지에 터를 잡고 살고부터 약 400년간이 지났다. 정손일은 가승에 의하면 훈도공 윤공의 6세손이다.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줄곧 이 집터와 그 주변에서 자작일촌의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살고 있는 종손 태환은 정경영의 2대손이자 丁京達의 종손인 丁손일로부터 13대째 선현을 봉사하는 제사를 모시고 있는 종손이다.

이 집터의 형국은 풍수지리의 대가인 도선국사가 지은 訣誌에 장흥읍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 약 40리 지점에 靈龜下海라는 곳으로 되어 있으며 집터가 거북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길지라고 전해진다. 누가 보아도 청룡이 굽이쳐 내려오고 그 가운데 점지한 대지는 명당임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곳 가대를 거북정, 즉 龜亭이라 불렀으며 실질적으로 정손일의 顯孫 정도삼의 호가 龜亭이다.

현재까지 구전에 의하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안채는 지금부터 약 400여년전에 정손일에 의하여 초가로 건립되었다. 그후 정손일의 9대손인 정각수에 의하여 1890년대 기존의 초가를 헐고 그 위치에 기와로 새롭게 지어졌다. 이때 사당과 곡간채가 같이 건립된다. 정각수는 해남 윤씨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서로 연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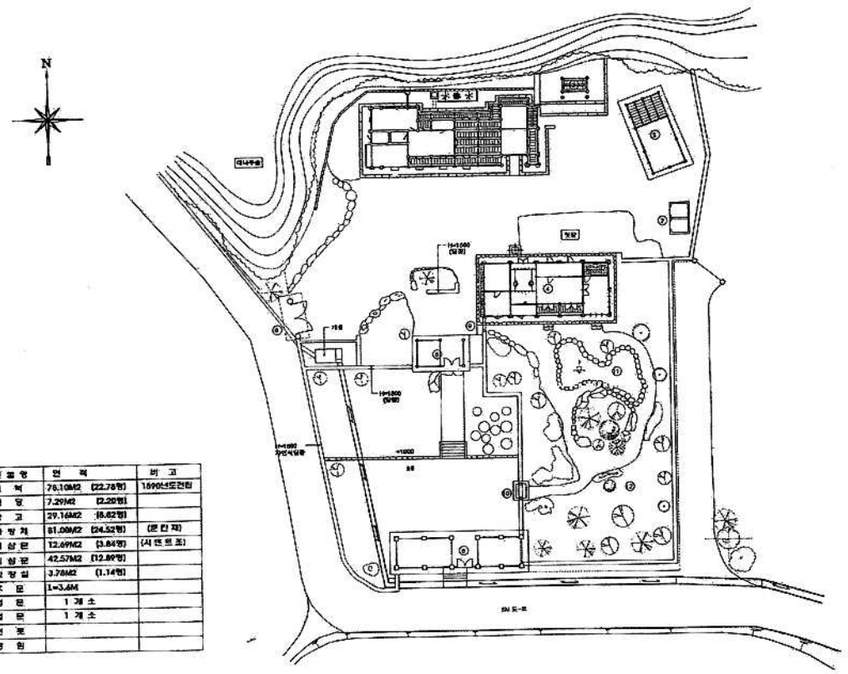
이집에는 두 곳에 사랑채가 있었다. 현 문간채인 바깥사랑과 현재의 사랑채가 있다. 바깥사랑채는 ㄱ자형이었고 안사랑채는 일자형이었다. 안사랑채는 정도삼에 의해 건립되었다. 아마 초창은 300여년이 된 것으로 보이나 그후 정도삼의 7대손인 정해룡에 의해 다시 중수된다. 이때 바깥사랑채와 안사랑채 앞인 사랑마당에 아름다운 정원이 건립된다.

현재의 가옥은 건축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61

1) 거북정이란 이 가옥의 속칭으로 공식적인 문화재 명칭은 보성 봉강리 정씨고택으로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61호로 지정되어 있다.

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문화재 명칭은 보성 봉강리 정씨고택이라고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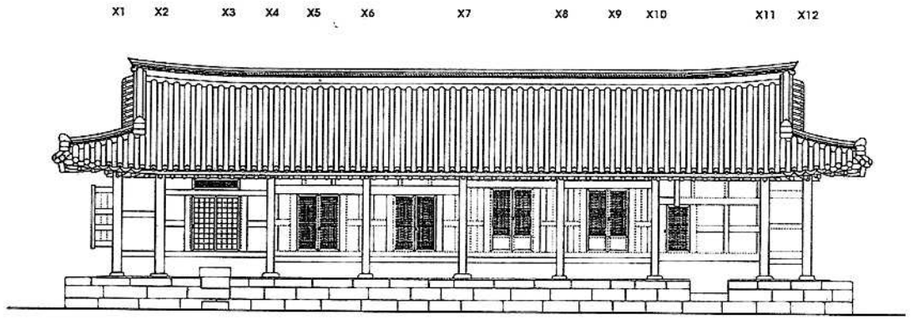
400여년전에 새롭게 건립된 구정은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농사를 많이 지어 재산이 많으며 학식을 갖춘 사대부집으로 전라도지방, 즉 남부지방의 가옥형식을 갖추었을 것이다. 안채를 비롯하여 사랑채와 문간채 등을 고루 갖춘 대가집, 혹은 대농집으로 지어졌을 것이다. 당연히 안채에서 시작하여 차츰 새로운 채들이 들어서면서 대가집다운 면모를 갖추어 졌을 것이다. 물론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부리고 사는 노비와 상민, 집안의 일을 도와주는 집사, 바깥주인인 가장, 안주인, 자녀들, 주인을 찾아온 식객들 등 다양한 인적구성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안채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조그마한 집이 커지거나 다양한 채와 채가 연이어서 지어졌을 것이다. 조선시대 사대부집에서 갖춘 가례의 준거에 따라 남녀가 유별하며 노소와 반상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성격을 갖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림 1] 보성 봉강리 정씨고택 (속칭 거북정)의 배치도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된 자료가 없고 현재 과거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후손들에 의하여 과거의 모습은 구전되어 추정되고 근대 이후의 내용은 확인될 뿐이다. 丁吉相에 의하면 구전으로 알 수 있는 과거의 모습이나 개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전에 의하면 안채는 원래 초가였다고 한다. 지금부터 약 400여년전에 정손일에 의하여 건립되었다. 그 후 정각수에 의하여 초가를 헐고 기와로 새롭게 지어졌으며 이때 사당과 곡간채가 건립된다. 현재 문간채인 바깥사랑과 안사랑채가 있는데 바깥사랑채는 ㄱ자형이었고 안사랑채는 일자형이었다. 정도삼에 의해 건립된 안사랑채는 아마 300여년전에 초창된 것으로 보이나 그 후 정해룡에 의해 다시 중수된다. 이때 현 문간채인 바깥사랑채와 안사랑채 앞인 사랑마당에 정원이 조성된다.



[그림 2] 보성 봉강리 정씨고택 (속칭 거북정)

1940년대에 안채 서쪽 대밭부근으로 새방채라는 건물이 있었으며 집안구조는 방2칸, 찬광, 마루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대밭 아래쪽에는 디딜방아가 놓여 있었으며 아녀자들의 목욕탕과 화장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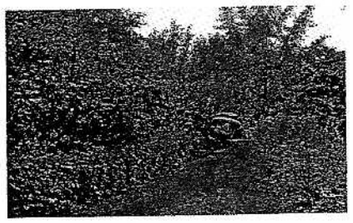
현재 여자 화장실 옆으로 안대문이 있었으나 1900년도에 폐문되었고 현재의 위치에 대문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또 현재의 곳간 뒤로 남자화장실과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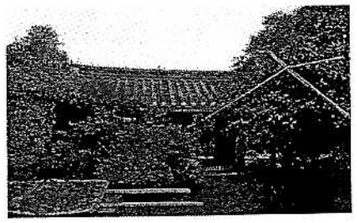
특히 1940년 한반도 모습인 정원을 사랑채 앞 마당에 조성하였으며 사랑채의 동측 단부에 새롭게 마루를 증축하였다.

바깥대문 옆에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목욕탕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현재 집안으로 흐르는 개울물은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시멘트로 좁고 깔끔하게 보수되었다.

2. 전남지방 주거건축의 특징[2)]

한국의 전통건축물 가운데 전남지방의 주거건축이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다른 지방에 비하여 한층 돋보인다. 흔히 남한전체의 주거건축 문화유산의 절반이 경북지역에 몰려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의 다시 절반은 전남에 있다고 본다. 전남지역은 비가 많아 다른 지역의 집들에 비해 지붕이 급하고 집이 낮다. 비가 많은데 평평한 지붕은 불리하고 비바람에 건물이 높아서 좋을 게 없다. 바람이 많으면 새끼를 촘촘히 엮어 방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추운 북쪽지역에 비하여 고온다습한 우리고장의 건축은 개방적이다. 앞이 훤히 넓다. 창문이 많고 마루가 필수적이며 간살이 넓다. 창문이 많아야 통풍이 쉽고 폐쇄적인 구들보다는 널판을 깐 마루가 있어야 여름이 시원하다. 마루에 자루를 깔고 누워있으면 부러울 게 없다. 대청마루 앞문은 들어열개문으로 하여 서까래의 걸쇠에 걸치면 대청마루가 바로 마당이 되고 마당이 바로 마루가 되기도 한다. 마당과 대청마루가 서로 관입되어 마루와 마당은 여름철에 기거하는 방이 되기도 한다. 누마루가 발달하여 운조루 등의 주거건축에서 중층건물의 흔적이 나타난다. 전남지역은 농토가 넓어서 생활이 여유롭다. 십도 타 지역에 비해 간살이 넓다. 산보다는 농토가 많다. 돌보다는 흙을 즐겨 쓴다. 토담집이 큰 산 아래에도 많다. 큰 산에는 돌이 많아 돌로 집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예가 없고 오히려 나무와 흙으로 지은 집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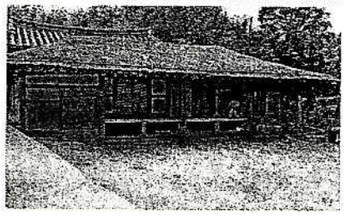


[그림3] 보성 이금재 가옥

경북지역의 주거건축과 전남지역의 주거건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비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경북지역의 주거건축은 'ㅁ자형주거'라고 통칭되는 조선중기의 사대부집이 중심이 되며, 여기에 더해 태백산맥의 山谷 사이에 자리한 양통집 계열의 집중식평면 주거가 또 다른 하나의 계열을 이루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의 주거는 시기적으로는 조선후기, 계층적으로는 부농계층의 주거가 남아있는 건축문화재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주거 형태상으로도 一자형의 겹집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남부지방형 주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전남지방의 시원적 주거유형으로는 부엌 앞에 모방이 달린 '모방형 주거', 폐쇄성이 강한 마루방인 마래를 갖춘 '마래형 주거' 및 부엌 건너편으로 방이 늘어선

2) 천득염, 전봉희, 한국의 건축문화재(전남편), 기문당,



[그림4] 보성 이용우 가옥

'중앙 부엌형 집'등 도서 및 해안지역 특유의 주거형식들이 일찍부터 학계에 보고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중상류주거와 서민의 주거형식에서 각각 경북지역과 전남지역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될 만 한 상대적인 짝을 이루고 있다. 다만, 건축문화재로의 지정은 양식적 판단을 우선하며, 또 시기적으로 앞선 것을 위주로 하며, 지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지정된 건수에 있어서는 경북지역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게 된다.

전남지방의 주거건축에서 먼저 사례가 많지 않은 전남지역의 ㅁ자형 주거로는 윤고산댁인 해남의 녹우당과 구례의 운조루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그 창건주가 각각 서울 및 경북 태생이며, 둘 다 오랜 관직생활을 통해 다양한 지역적 경험을 쌓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창건한 ㅁ자형 주거가 전남지역의 전형적이고 지배적인 건축형식은 물론 자생적 건축형식이라고 하기에도 곤란하다.

전남지역의 주거건축은 역시 一자형의 살림채들이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된 주거가 대표적이다. 다만, 같은 一자형 집이라고 해도 그 단면방향의 분화 • 발전의 정도에 따라 홑집 • 퇴집 • 겹집 • 두줄백이집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조선후기 집들이 대부분인 지금의 문화재 주택들은 겹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겹집이란 구조골격은 전후로 툇간을 가진 전 • 후퇴집 혹은 前後左右로 모두 툇간을 가진 전후좌우 퇴집의 구조를 가지나, 실내공간의 사용에 있어서는 집의 일부분(대체로는 마지막 칸)을 전후로 양분하여 상 • 하방을 두는 집을 말한다. 상 • 하방을 두는 것은 전통적인 주거건축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인데, 안채부의 생활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내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생겨난 변화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겹집으로의 발전은 짧은 기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조선후기에 들어 전후면의 툇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식이 시도되다가 대체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겹집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실내공간의 폭 방향 발달이 더 진행되면서 20세기 초반의 주거들에서 보는 것처럼 후면의 툇간이 온 칸과 같거나 비슷한 규모로 커져서 대청 등을 제외한 온돌방 전체가 상 • 하방으로 구성되는 경우까지로 발전하게 되는 예를 볼 수 있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집들도 겹집으로 통칭되나 평면계획상의 변화를 중시하여, 굳이 구분하자면 두줄백이집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평면의 분화발전의 경로는 겹집화에 그치지 않는다. 보성의 이금재가옥과 이용우가옥에서 보는 것처럼 전면에서 보았을 때는 一자형의 집으로 보이지만 후면으로 돌출부를 가져 전체적으로는 요(凹)자형의 평면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그 변화의 동기나

결과로 볼 때 매우 이색적인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집이란 대체로 자기과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값비싼 재화로 대대로 물려 사용하는 것이니 만큼, 보통의 경우 실제보다 과장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경우는 오히려 외부에서 볼 때 실제보다도 작아 보이게 하는 것이 특이하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안채의 후면부, 혹은 상부의 다락 등을 이용하여 밖에서는 알 수 없는 비밀의 수장공간을 만드는 것도 근대기 전남지역의 집들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는 모두 풍부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곡식이나 재화의 비밀 수납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학운동 이후의 내외적으로 불안한 사회정세를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앞으로 꺾인 ㄷ자형평면들도 많아 특이한 형식을 이룬다. 이들은 대부분 해남윤씨가옥의 평면으로 윤고산댁, 윤두서댁, 윤탁가옥 등으로 좁은 마당을 중심으로 ㄷ자로 꺽인 안채의 평면형식을 하고 있어 좁은 마당공간을 일자형으로 펼치지 않고 효율을 높인 대안을 강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여러 채의 건물이 분산형으로 배치된 모습은 얼핏 원칙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보다 친자연적인 배치기법으로 앞으로 많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자연의 지세를 최대한 살리고 그 미세한 지세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인 원칙은 전면에 사랑채를 두고 그외 나란히게 후면에 안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향을 차지하기 위하여 혹은 지세의 경사를 이용하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어 직각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 사랑채와 안채를 옆으로 나란히 늘어놓는 배치형식도 발견되다. 이들 모두는 도면상의 도식적인 배치원칙을 따르기 보다는 진입에서 방으로 이르는 사람의 실제 움직임상의 선후관계를 고려한 배치원칙을 따르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매우 미세하게 조정된 특색있는 외부공간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정형적인 배치에서는 찾기 힘든 것이다.

3. 거북정의 凹字形 안채의 형식과 의미

본 절에서는 거북정의 안채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는 凹字形 혹은 ㄷ자형, 工字形 안채평면의 구체적인 예를 보이는 해남의 해남 윤씨가, 화순 달아실 마을의 제주 양씨가, 보성의 광주 이씨가의 주거건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중에서 뒤로 돌출된 凹字形은 보성의 집들이고, 앞, 뒤 방향으로 돌출한 工字形은 달아실 마을의 제주 양씨가, 앞으로 돌출한 ㄷ자형식은 해남 윤씨가 등에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평명형식이 나타날까?

특히 보성지방의 요자형 주거는 동성마을이라는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목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거개념을 시도하고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즉 뒷마당공간의 사용과 가사공간과 수납공간, 그리고 여성적인 은밀한 공간의 마련,

넓어보이는 공간을 가급적이며 줄이고 단촐하게 보이려는 의도가 나타난 것이다.

화순의 공자형주거는 전통적인 상류주택의 구성을 모방하고 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나타난다. 즉 지방부농주거의 자유분방한 주거형식이라 생각되는데 안채의 본채와 양날개채를 별도도의 건물로 구축하고 이들을 전체적으로 지붕을 얹음으로서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는 것도 재미있는 구성이라 하겠다.

윤고산댁의 안채는 ㄷ자의 평면형식인데 전면을 가로막고 있는 사랑채와 함께 전체적으로는 ㅁ자형을 이룬다. ㄷ자형 몸채의 가운데 부분에 마루를 놓았으며 양옆의 날개채에는 방이 있고 날개채의 끝부분에 부엌이 놓이는 대칭적인 구조이다. 안채는 배치축이 동서로 놓여 향이 나빠지는 불리한 점이 있는데 윤고산댁은 안방과 안대청, 며느리방, 시할머니방을 날개채에 배치함으로 남향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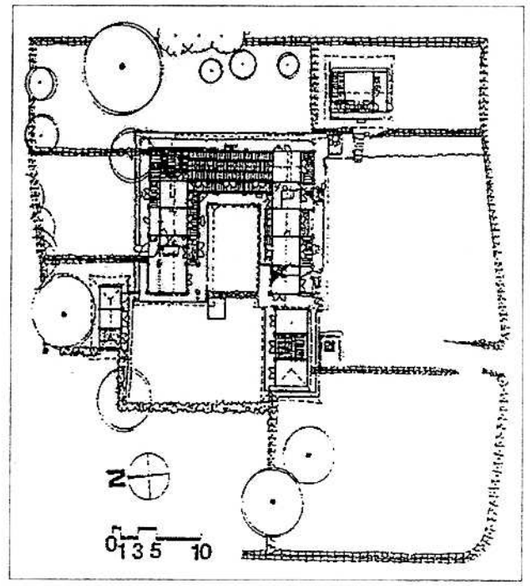
3.1 해남 尹氏家의 주거건축

해남 및 강진에는 해남윤씨와 관련된 건축물이 다수 있다. 고산 윤선도의 녹우당을 비롯한 윤두서 고택, 윤탁가옥 등이 있으며 어초은사당, 추원당 등의 제각 건축, 보길도 및 금쇄동, 수정동에 이르는 별서건축들이 있다. 또한 강진군 덕정동에는 고산의 주도로 건축된 제각인 해남윤씨 추원당과 영모당 그리고 고산의 외증손자인 정약용이 거주했던 다산초당이 있다. 이중에서 고산의 녹우당과 윤두서고택, 윤탁가옥의 안채의 평면이 모두 ㄷ자형을 하고 있다.

1) 윤두서 고택

윤두서고택은 해남 현산면 백포리로 간척지 인근의 해안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위치상의 특징으로 바닷가 인근으로 주거로는 용이하지 않아 공재 윤두서는 잠시 머무는 용도로 사용하고 주로 백련동(녹우당 추정)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백포리에서의 생활을 놓고 본다면 공재에게 있어서 이곳은 주생활 거처지는 아니었지만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16-18세기 해언전을 관리하는 전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5] 윤두서 고택 배치도

윤두서 고택은 ㄷ자형의 안채와 아래채, 곳간채, 사당 등의 건물이 있으며 과거에는 사랑채와 행랑채등이 더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ㄷ자형의 안채는 녹우당의 안채와 형태적인 면에서 비교되는데 전체적인 구성은 비슷하나 칸의 치수구성과 기둥의 가공기법을 보면 윤두서고택이 더욱 짜임새가 있다. 안채는 중앙의 대청칸과 양측 날개채에 방을 구성하며 방의 앞뒤로 툇마루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구성은 두집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윤두서 고택의 안채는 몸채의 길이와 날개채의 길이가 10자와 9자로 규격화 되어 있는데 몸채와 날개채의 치수가 현격히 차이나는 점은 녹우당과 비교되는 칸 구성이다.[3)]

안채의 상량문에 따르면 윤두서 고택의 초창연대는 1730년 중수는 1871년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윤두서 고택의 실제 거주자는 공재의 아들대나 손자대에 일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 논문[4)]에 따르면 윤두서 고택이 1730년 의 녹우당을 모델로 삼아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이는 추정이 근거한 것으로 정확한 근거는 없다.

윤두서 고택의 사당은 안채의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데 전퇴와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측칸에 아궁이를 둔 것으로 보아 사당이라기보다는 살림집에 가깝다.

2) 윤탁 가옥

윤탁가옥은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로 공재의 7자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는 마을에 위치한다. 배치는 남북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으며, 경사지형의 특성상 크게 3개의 축단을 구성하고 있다. 남쪽을 주 출입으로 1단에는 대문채, 2단에는 사랑채, 3단에는 중문과 안채, 별당채를 구성하였으며, 최상단에는 현재 채마밭이나 사당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대문간은 ㄱ자의 평면으로 중앙에 솟을 대문을 두고 좌우로 행랑채와 곳간을 함께 드렸다. 사랑채는 대문채와 이격거리를 가져 자연스럽통해마당을 구성하고 있다. 마당의 끝에 높은 축대를 쌓아 사랑채를 배치하였는데 7칸의 1자 집으로 전 후 퇴를 가지는 겹집 구성이다. 중앙에는 대청마루를 놓았으며 좌우로 방을 놓았다. 사랑채의 특이한 점은 팔작지붕이 아닌 우진각 지붕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높은 축대의 단 구성을 가지는 안채를 배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사랑채 좌측에 있는 한칸짜리 건물은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한칸을 반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는데, 반칸의 상단에는 솥을 걸고 하부에는 불을 땔 수 있게 하였으며 남은 반칸에 목욕하는 공간을 두었다. 목욕탕 및 벽돌을 활용한 굴뚝과 방화벽의 디테일 등 은 일제기 대지주 저택에 흔히 등장했던 근대적인 요소들로 해남윤씨가 건물 중 이곳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랑채의 좌측 동선을 통해 안채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사랑채 배면의 높은 축대 위 중문을 지나 안채에 이르게 된다. 중문은 출입부의 축을 건물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꺾어 시선을 차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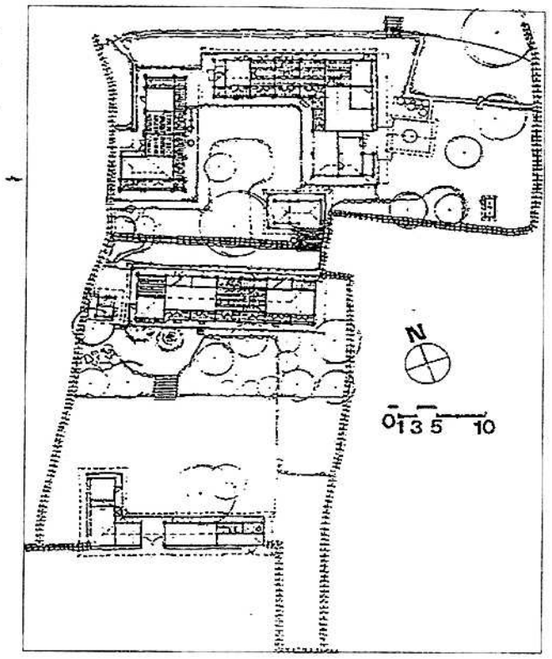
안채는 ㄱ자형의 형태로 ㄱ자형의 별당채가 이어져 전체적으로 ㄷ자형의 형태를 구성한다. 동선은 분리되어 있는 별동이나 전체의 구성에서 녹우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ㄱ자형의 안채는 남향을 하는 중앙칸에 마루를 구성하였으며 우측 돌출부분에 방과

3) 전봉희, 해남윤씨가의 주택경영에 관한 연구
4) 위와 동일

부엌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본 녹우당, 윤두서 고택과 같은 구성이다. 또한 3가옥 모두 중앙의 대청칸 전면과 배면에 창호를 설치한 점이 동일하다.

ㄱ자형의 별당채는 4칸의 전 후 퇴집으로 중앙에는 대청을 좌우에 방을 드려 안채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림 6] 윤탁 가옥 배치도

3.2 보성 廣州 李氏家의 주거건축

1) 보성 이금재가옥(寶城 李錦載家屋)

- 지정번호 : 중요민속자료 제157호
- 건축유형 : 주택
- 소 재 지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28
- 창건시기 : 1900년 이전 곳간채, 1900년 전후 안채

<요(凹)자형 주거 - 일자집의 근대적 변형>

보성군 일원의 여섯 채의 국가문화재급 주택은 모두 광주 이씨의 일족이 건립한 것들이다. 이처럼 일족이 다수의 문화재급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씨족의 경제적 사회적 위세가 대단하였으며 동시에 건축에 대한 특별한 기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 대개의 경우 안동의 하회마을이나 경주의 양동마을 등과 같이 일족이 한 지역에 모여 사는 씨족마을들에서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여기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나 보성읍의 예동마을과 득량면의 강골마을에 각 세 채씩의 문화재급 주택이 있다. 이처럼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고급 주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명문가라고 하면 전남지역만 하더라도 광주 이씨 이외의 집안들을 여럿 찾을 수 있으나, 그들이 경영하였던 집만을 가지고 본다면 장흥의 방촌에 사는 위씨와 함께 광주 이씨의 집안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따라서 이들의 집에 대한 애정과 노력이 남달랐다는 것을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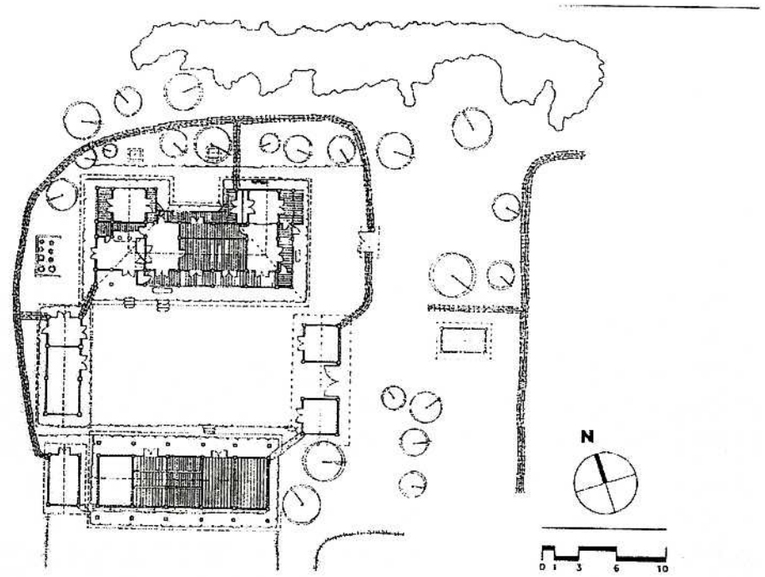
작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 모범과 좋은 목수의 존재 여부의 지연적 요소를 이유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강골마을이나 예동마을의 경우 대상 주택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것들로서 같은 목수 혹은 목수군에 의한 작업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많고, 반면 하회나 양동마을의 경우는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된 마을이니 만큼 좋은 선례에 의한 영향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광주 이씨는 고려말의 향리인 당(唐)을 시초로 하며 지금의 서울시 둔촌동 부근에 살면서 광주(廣州)의 본관을 얻었다. 호남지역과의 인연은 호남관찰사를 지낸 5대 세정(世貞)에게서 시작하며 그의 다섯째 아들인 6대 계완은 퇴계의 문인으로 구례, 임실, 고성, 장성 현감을 지냈고 말년에 처향(妻鄕)인 보성군 대곡(현 조성면 대곡리 한실마을)에 정착하여 호남 입향조(入鄕祖)가 된다. 이후 그의 자손들은 보성군 일대의 복내면, 보성읍 등지로 이거하여 번성하였으며, 특히 수완의 셋째 아들인 유번(惟蕃)은 합천 군수를 지낸 순흥 안씨 계잠(順興 安氏 季岑)의 큰딸에게 장가를 들어 처가의 향리인 이곳 강골마을의 전답과 집을 물려받게 됨으로써 광주 이씨가 강골마을에 터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이금재 가옥은 그 옆으로 나란한 이용옥가옥, 이식레기옥과 함께 강골마을의 기장 중심부에 위치한다. 집 뒤로 우거진 숲의 동산을 주산으로 삼고 문전옥답의 건너편 만휴정 언덕과 오봉산을 안산으로 삼아 남향하고 있다. 보성의 최고 길지라고 알려져 있는 마을은 규모는 작지만 풍수의 기본 형국상 명당의 자리에 위치한다. 남쪽이 정면이나 전면의 오봉산, 칼바위 등이 모두 악산(岳山)인지라,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계좌(癸坐)를 취하게 되어 방위는 남남서의 향을 갖는다. 이 집은 전술한 이유번의 고사와 관련하여 마을내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라고 전해지나, 정착 당시의 유구를 발견하기는 힘들고, 다만 안채의 정면에 놓인 곳간채의 구조형식에서 고식이라 할 수 있는 형식이 남아있다.

집의 전체적인 구성은 집 뒤로 돌출한 요(凹)자형의 독특한 평면 외곽형태를 갖는 안채와 안채와 직각으로 놓인 문간채, 그리고 곳간채와 부속채들이 있다. 곳간채는 정면 5칸의 규모로서 집의 다른 부분의 구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큰 규모라 할 수 있으며, 이 집의 성격을 농사를 아주 많이 짓고 있는 대농집으로 판정하는 준거가 되고 있다. 가구상 특이한 점은 전후면으로 벽면의 중심이 되고 있는 평기둥의 바깥으로 또 다른 기둥을 평기둥에 비하여 가늘고 낮게 배열하여 길게 돌출한 처마를 받치게 한 점이다. 대개의 경우 이와 같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나간 기둥은 내부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함인데, 여기서는 단지 지붕의 처마를 받칠 뿐 공간을 전혀 내부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기둥은 순전히 구조적인 보강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데,

이처럼 구조에 대한 과도한 활용은 일반적으로 고식의 건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목가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거나, 혹은 건설 작업에서의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중세적 상황에서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구조적 안정성을 원칙으로 하는 예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집의 경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슷한 구조방식이 예동마을의 이용우가옥의 안채에서도



[그림 7] 이금재가옥 배치도

발견되기 때문에 처마선에 있는 덧기둥을 가지고 고식이 라고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안채는 凹字形의 평면형태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ㄱ자형의 곱은자집이나 ㄷ자집의 경우 꺾이어 돌출하는 날개채가 一자형의 본채 前面으로 놓이는 데 반하여, 이 집의 겨우 凹字形 집에서는 그것이 집 뒤쪽인 背面으로 돌출하여 나갔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일자형 평면의 변형이라 하겠다. 이러한 요자형 집을 만든 이유는 우선 외부에서 보았을 때 一자집과 같이 보이므로 집의 실제적인 규모를 감추어 훨씬 더 작은 집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3면이 둘러싸인 내부화된 뒷마당을 가질 수 있으며, 셋째는 요자형의 돌출한 부분이 그 바깥면을 향하여 각기 독립적인 정면과 마당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인 이유로 좁은 대지를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생각된다. 특히 이금재가옥의 경우 오른쪽 날개채를 마치 사랑채와 같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왼쪽의 날개채는 안방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뒷방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사용되어서, 마치 하나의 건물 안에 성격이 다른 안채와 사랑채, 아래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대단히 경제적이며 다기능적인 농축된 효과를 갖는다.

첫 번째 이유로 들었던 규모를 가장한 것은 집의 규모로 징수하였던 세금의 부담에서 가벼워질 수 있고 도둑들의 표적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되며 두 번째로 거론된 뒷마당은 외부로부터 완전히 숨겨진 비밀공간이면서 동시에 집의 각 부분으로 직접

연결되는 가족생활의 구심점이 된다는 점에서 근대적 가족공간의 탄생과 아울러 생각할 수 있다. 이 집의 경우 뒷마당은 사랑마당으로 여겨지는 옆마당과는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안마당과는 건물로 막혀 있는 매우 폐쇄적인 성격을 갖는다. 뒷마당으로 접근하려면 부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나마 집을 한바퀴 돌아가야 된다. 하지만, 내부공간인 마루방이나 안방으로부터는 창문만 열면 바로 들여다보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밖에서는 있는지 조차 분간하기 힘든 뒷마당에는 두 개의 수납공간이 숨겨져 있다. 하나는 뒷방의 천장 위로 난 다락방으로 다락으로의 접근은 뒷마당에 있는 사다리를 통하게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랑 뒷방의 일부분을 변칙으로 구획하여 만든 방이다(문화재대관 등 각종보고서의 도면은 이 부분을 잘못 표기하고 있다). 즉 내부의 기둥열과는 달리 툇간을 하나 숨겨 수납공간으로 꾸미고 그 바깥에 다시 쪽마루를 달아, 얼핏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은밀한 비밀공간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요자형의 평면을 가지고 있는 예는 인접한 보성읍 옥암리 예동마을의 이용우가옥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용우가옥과 이금재가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용우가옥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진체적으로 이금재가옥은 외부세계에 대한 불인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내부화된 미로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19세기말 이후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의 외부적 혼란과 농촌의 경제적 부흥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2) 보성 이용우가옥(寶城 李容禹家屋)

- 지정번호 : 중요민속자료 제163호
- 건축유형 : 주택
- 소 재 지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 580
- 창건시기 : 순종 융희 2년(1908) 안채

보성읍 옥암리 예동마을은 보성의 최고 명당인 길지로 유명하다. 따라서 보성을 근간으로 하고 살았던 광주 이씨의 집들이 이곳에 자연스럽게 위치하게 된다. 예동마을은 강골마을과 같이 광주 이씨의 씨족마을로서 강골마을과는 큰집 작은집과 같은 관계를 가지며, 특히 이용우가옥은 강골마을에 있는 이금재가옥과 창건주가 같다. 즉 이용우가옥의 과거 거주자 송씨 할머니는 이용우씨의 첫째 며느리이고 이금재씨는 그의 둘째 아들이며, 국회의원을 지낸 중재 씨가 넷째 아들이 된다. 두 집 모두 이용우씨에 의해 지어졌으며, 건축 형식상으로는 이금재씨집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한편 영릉참봉을 지낸 이병상이 지었다는 다른 자료도 있다.

이 집은 문간채와 아래채, 사랑채, 안채, 곳간채, 돼지우리와 블록으로 지은 현대식 창고, 집밖의 호지집(일명 가랍집)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지는 앞뒤로 경사가 급한 지형을 여러 단으로 축대를 쌓고 그곳에 자리함으로 각 건물들을 등고선을 따라 옆으로 길쭉하게 배열하였다. 사랑채와 대문간만을 낮은 축단인 전면에 두어 안채와의 사이에 안마당을 만들었으며 사랑채의 전면으로는 매우 규모가 작은 공간이 있을 뿐이다. 때문에 대문을 들어서면 먼저 안채가 정면을 차지하고 사랑채는 그 측면만을 보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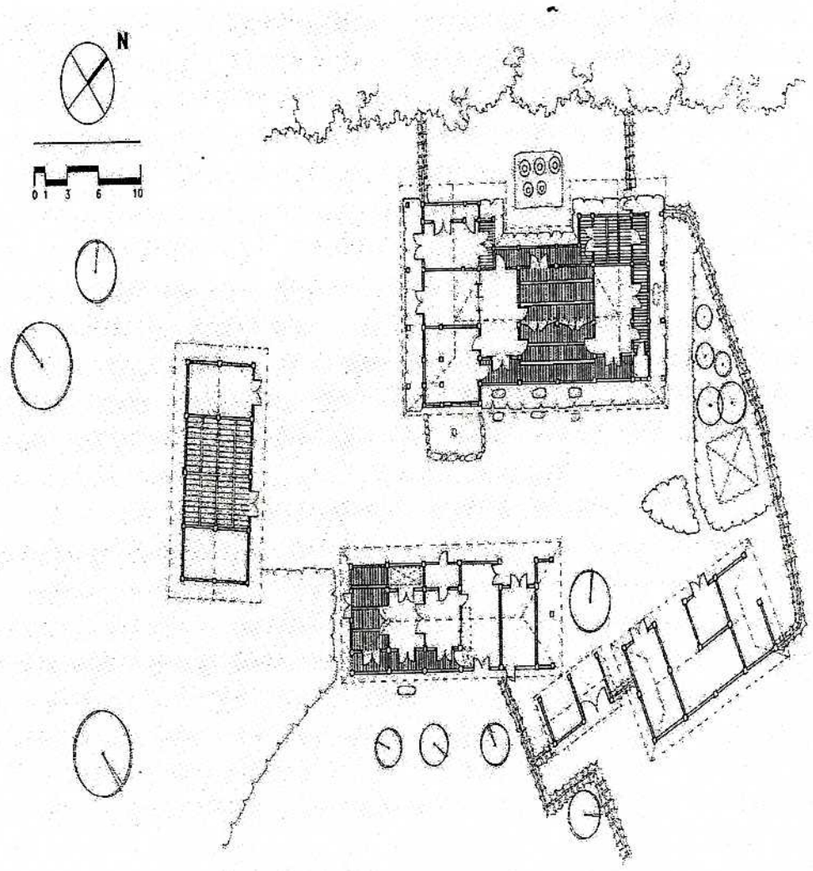
이어서, 여타의 고급 주거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간의 여유와 건물의 당당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안채에 부속한 아래채와 같은 위상으로 비춰진다. 안채는 이용우의 작품으로 전하는 데 반하여 사랑채는 다른 곳에서 이축해 온 것이라 전한다.

요(凹)자형 평면의 안채는 안채 및 사랑채의 통합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원래는 사랑채가 없이 안채에서 우측 날개부분이 사랑채의 역할을 하였으나 후대에 사랑채를 이축하여 온 것이라는 말이 있어 쉰빙성을 갖는다. 정면 5칸에 전후좌우퇴집인 안채의 평면에서 특이한 점은 중앙에 있는 두칸의 넓은 마루방으로 용마루선을 따라 중앙부분을 구획하여 앞뒤에 각각 한 칸 깊이의 툇마루와 대청 마루방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전면의 마루는 양측면의 툇마루와 더불어 마당을 향해 개방적인 넓은 대청마루가 되고, 후면의 마루는 전면은 4분합 들어열개문이고 배면은 판장문으로 이루어진 다소 폐쇄적인 마루방을 이루었다. 실의 사용에 있어서도 전면의 마루가 보다 공개적인 장소라면, 후면의 마루방은 가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양측면에 각각 안방과 건넌방이 연접하는데 안방에서는 이들 두 개의 마루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데 반하여 건넌방에서는 전면의 열린 대청으로만 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두 마루의 공간적 성격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듯 복잡한 공간구성을 뒷받침해 주는 구조적 골격은 양단부는 2고주5량가 형식의 전후퇴가구으로 하였고 중앙의 대청부분은 전후면이 대칭인 두줄백이의 가구구조를 혼용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즉 몸채와 날개채로 각각 가구구조를 달리하였는데 날개채를 앞으로 돌출시키지 않고 뒤로 돌출하여 뒷마당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뒷마당 공간은 건물의 규모를 적게 보이게 할 수 있고 은밀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 이곳 보성지방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평면형식이다. 이에 더하여 좌, 우측면과 후면으로는 처마를 받치기 위한 덧기둥이 평기둥 밖에 설치되어 있다. 이 점 역시 강골마을 이금재가옥의 곳간채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형식으로 동일한 장인에 의한 솜씨일 가능성이 크다.

곳간채는 최근 전면적으로 보수된 것으로 중앙의 두 칸은 마루방, 좌우의 두 칸은 흙바닥으로 마감한 4칸 규모의 맞배집이었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4칸 모두 마루방형식이다.

대문간 앞으로는 호지(護持)집이 두 채 있었다고 전하는데 현재는 한 채만 남아 있다. 호지는 새경을 받는 하인인 머슴과는 달리 생활권을 따로 가지고 있으며, 대개 남자들은 소작을 살고 아녀자들은 주인집의 집안일을 거드는 등 경제적 예속상태에 있는 신분을 말한다. 이들 호지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집은 대개 주인집의 행랑채나 문 앞의 오두막에 거처하였기 때문에 행랑살이 혹은 담살이라고도 불렸으며, 이들의 존재 여부는 주인집의 경제적 규모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림 8] 이용우가옥 배치도

3.3. 화순 제주 양씨가의 주거건축

1) 화순 양동호가옥(和順 梁東浩家屋)

- 지정번호 : 중요 민속자료 제152호
- 건축유형 : 주택
- 소 재 지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569
- 창건시기 : 18세기경 안채, 19세기말 내외 사랑채

양동호가옥과 양승수가옥이 있는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월곡마을(일명 달아실마을)

은 인근의 유곡마을 및 양정리와 함께 제주 양씨의 집성촌으로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이자 산수화가로 유명한 학포 양팽손(學圃 梁彭孫)의 후손들이 자작일촌하여 일군 마을이다. 원래 제주 양씨의 이 지역 시거지(始居地)는 북쪽으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광주시 양과동 부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이후 세거지의 이동과정에서 건지산 남쪽의 호동으로 이주하였다. 학포공이 그와 사가독서(賜暇讀書)[5]하였던 정암(靜巖) 조광조(趙光祖)의 적거생활을 보좌하기 위해 그의 유배지인 능주현에 가까운 이곳 월곡리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전하는데 조광조가 화순 능주에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아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월곡마을은 동서로 길게 뻗은 골짜기의 북쪽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집들은 경사를 좇아 북향을 하고 있으며 전후 2열의 주거지가 동서로 나란하게 열지어 있다. 종가는 이러한 일반적 주거지의 배치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표고가 한 단 높은 곳에 독립적으로 위치하며, 종가의 바로 옆에는 입향조인 학포공을 모시는 부조묘와 문중의 제각(祭閣)이 있다. 양동호가옥은 앞뒤로 깊은 대지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전후 2열의 필지 구획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문을 전면 도로에 면하여 두지 않고 고샅을 만들어 측면의 담장에 출입구를 둔 것은 의의가 있다. 이는 전면도로에 면한 필지에 비하여 한 켜 뒤로 물러난 필지가 위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후면의 필지가 전면의 필지에 비하여 지형상 높은 곳에 위치하며 더 좋은 조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전면의 필지는 통과도로로써 공공성이 강한 도로에 면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후면 필지에 비하여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동호가옥은 대문을 대지의 전면 도로에 면해 두지 않고 측벽을 이용하고 있으며, 마을내의 또 다른 대규모 주거인 양승수가옥은 아예 안채와 사랑채를 후면의 필지에 옆으로 나란하게 늘어놓는 수법을 채택하고 있다.

양동호가옥은 월곡마을 전체에서 기와지붕을 얹고 있는 몇 안되는 예이다. 집의 구성은 안채와 사랑채 외에 단칸 문의 형식을 갖는 대문과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 하는 중문, 그리고 안채의 영역에 있는 광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지 전체는 후면 필지의 대지 높이에 맞추어 정지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랑채 전면의 담장은 길에서 보자면 높은 축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집은 ㄷ자 모양의 안채와 -자형의 사랑채가 ㅁ자를 이루며, 바깥대문과 안대문을 설정하는 등 사대부집의 형태를 갖추었다. 안채는 18세기, 사랑채는 19세기 후반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안채는 정면 7칸의 一자형집을 기본으로 대청과 안방을 나란히 둔 남도방식을 하고 있으나 양 측면 마구리에서 전면으로 일부 돌출하여 전체적으로 ㄷ자형의 평면형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좌측면의 돌출부는 몸통부에 비하여 단지 반 칸 정도 돌출되었을 뿐이며, 우측면의 돌출부는 부엌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한 칸반 규모로 돌출되었다. 안채의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몸통부는 전면에는 퇴가 없고 후면으로만 툇간을 둔 후퇴집의 형식을 기본적으로 취하며, 부분적으로는 후면으로 처마선까지 확장하여 전후 2칸의 규모를 갖는 부분이 있다. 향 좌측 제1칸은 전면의 돌출부를 온돌방으로 하고,

5) 조선시대 유망한 문신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와 연구에 전념하게 한 제도.

그 뒤의 한 칸 반을 기둥칸 2칸으로 만들어 독립적인 마루방으로 만들었다.

이 마루방은 안대청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매우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공간으로, 마당에 면한 좌측면을 향하여 2칸 모두 두 짝 여닫이를 갖는 등 개방적인 입면을 취한다. 이는 좌측면이 절대 방위로 남향에 해당하는 좋은 곳이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좌측면의 발달과 활용은 월곡마을 주거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제2칸과 제3칸, 제4칸은 전면의 1칸씩과 후면의 퇴칸을 모두 통칸인 넓은 안대청으로 삼아 안채의 중심을 넓게 이루었다. 결국 보칸 1칸반의 깊이를 지닌 정면 3칸의 아주 넓은 대청마루를 갖고 있어 그 기능이 대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역할을 수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제5칸과 제6칸은 전면의 온칸을 안방으로 삼고 후면의 툇간은 마루를 깐 도장방을 만들어 수납과 배면출입을 위한 보조공간을 만들었다. 마지막 칸은 전면의 돌출부를 포함하여 측면 2칸(기둥칸으로는 3칸)을 부엌으로 만들고 후면의 1칸에는 부엌방을 드렸다. 부엌방은 하녀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전면과 측면으로 각각 부엌과 안방의 후면 도장방으로 통할 수 있게 하였고, 외기에 면한 나머지 두 면에도 역시 같은 형식의 외여닫이를 달아 서비스공간으로서의 공간적 성격을 분명하게 하였다. 또한 부엌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 처마밑까지 도리를 빼내어 수납공간을 확장하였다.

평면상으로 보아 각 실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되어 있으며 또 전체적으로 ㄷ자형의 평면형식을 취면서 꺾임부가 생기기 때문에 기둥의 배열이 정연하지 않고, 지붕의 형식 역시 몸통부는 합각을 가진 팔작지붕으로 하고 부엌에 해당하는 돌출부는 박공형 구조로 지붕을 구성하였으며 부엌 전면의 돌출부에는 눈썹지붕을 덧대는 등 전형형식을 벗어난 시도가 눈에 많이 띈다. 따라서 이러한 부엌부분은 증축되고 변형된 것이라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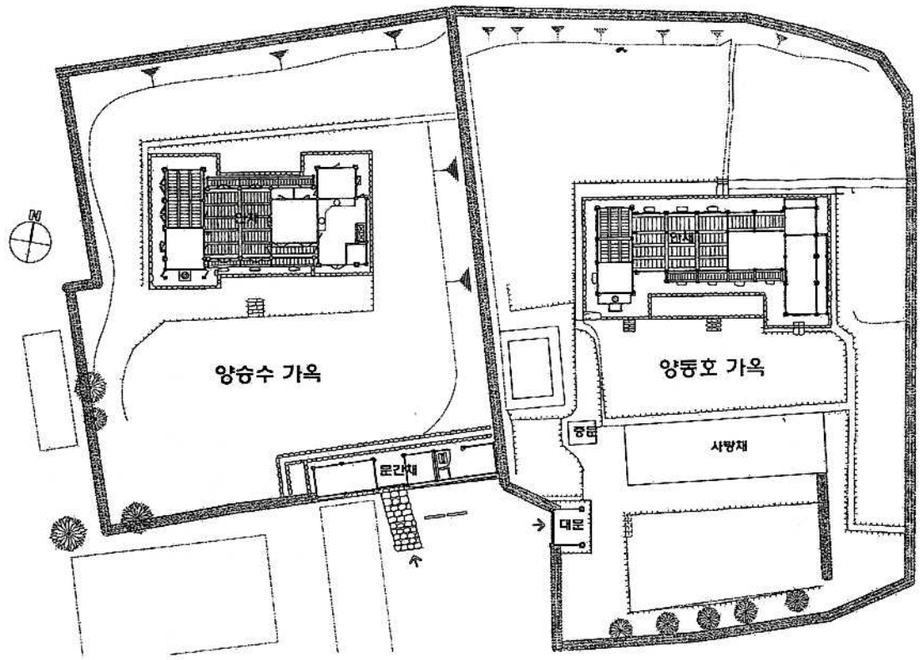
세벌대의 막돌 기단 위에 윗부분을 거칠게 다듬은 덤벙주초를 놓고 원기둥을 세웠으며 기둥머리에는 보아지와 장여를 직각방향으로 결구한 사개맞춤으로 보와 도리등의 상부가구를 받치고 있다. 집의 규모에 비해 다소 왜소한 보를 양쪽 기둥위에 얹고 배면과 기둥과 내부기둥 위에는 곡면이 완만한 우미량형의 퇴보를 걸쳤다. 18세기 인물인 명구(命龜)의 소작이라 하니 이 시기가 초창임을 알겠으나 후대에 여러 차례의 증축으로 인한 변형이 눈에 띈다. 이집의 가단은 마치 향교나 궁궐의 월대처럼 되어 있다. 혹시 후대에 좁은 기단을 좀 더 넓게 축조한 것이 아닌가 한다. 기단이 좁아 전면의 툇마루 역시 지붕의 낙수면에 따라 크기를 설정한 것 같다.

전체적으로 평면의 규모가 남부지방의 一자형집으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고, 또 온돌방의 규모에 비하여 대청마루가 발달되어 있는 점 등은 고식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팔각지붕을 얹은 사랑채는 정면 5칸의 전후퇴 집으로 좌측 단부에는 쪽마루를 내었고 우측의 단부에는 아궁이칸을 덧달아 내었고 그 위에는 눈썹지붕을 설치하였다. 이 집의 외형상의 특징은 전면에 차양간이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차양이 있어 다른 지붕의 서까래에 비해 더욱 짧아지고 사랑채의 기단 외부에 단차를 두어 또 다시 차양의 기단을 두었다. 사랑채의 좌향은 안채와 같이 북동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의 낮은 햇빛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설치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전남지역에서 이와 같이 차양간을 설치한 예로는 해남의 녹우당과 고산제각 추원당 그리고 장흥 방촌마을의 위성룡가옥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19세기 이후의 건립된 것 들이라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창덕궁 후원의 연경당 선향재의 차양이나 강릉 선교장의 열화당 차양 모두 19세기 이후의 소작이다. 따라서 양동호가옥의 차양 역시 이 가옥의 초창 시기로 추정되는 18세기 중반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차양을 덧댄 것이라 생각된다.

정면 5칸인 사랑채의 평면구성은 향 좌측으로부터 제1칸에는 대청마루, 제2칸과 제3칸의 반은 1칸반 크기로 사랑채 큰방을 전면에 두고 배면에는 도장방과 배면 출입문, 그리고 아궁이로 사용하고 있다. 즉 제3칸의 일부를 막아 후면의 안마당에서 접근하는 아궁이실을 두었고, 2칸과 3칸의 일부에 온돌방으로 된 큰방을 드렸다. 반칸 부엌 다음의 제4칸과 5칸은 또 다른 방으로 만들었다. 툇간의 이용에 있어서도 전면의 퇴는 모두 툇마루로 하고 후면의 퇴는 마루방 및 그 옆의 온돌방만 도장방을 두고 나머지 칸은 반외부 공간으로 비워 놓았다. 출입문에 가깝지만 좌측으로 대청을 두고 그 옆에 사랑큰방을 둔 이유는 역시 좌측이 남쪽향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는 출입문에서 먼 쪽을 위계가 높은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칸 치수는 일정하지 않아서 마루와 큰방이 있는 쪽을 크게 하고 나머지 두 칸을 작게 처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가 증축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아 양동호가옥은 18세기 중엽에 초창된 것으로 건립연대가 보다 이르다는 점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이 있지만 구조와 평면이 순조롭게 일치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증축되면서 형태적으로 다소 이질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안채에서 전퇴가 없는 점 등 19세기 이후의 집들에서 본격화 되는 겹집화현상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조선 후기 주거건축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이 집의 가구구조 역시 특이하다. 이 정도 규모의 남도지방 양반가는 대부분 2고주5량가로 전후좌우퇴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전퇴가 없이 3개의 기둥을 같은 높이로 세우고 대들보와 배면 퇴칸의 퇴보를 기둥위에 걸쳤다. 또한 대들보 위에는 사다리꼴의 판대공을 놓고 장혀를 받친 방형의 굴도리를 얹었다.



[그림 9] 화순 양승수 양동호가옥 배치도

2) 화순 양승수가옥(和順 梁承壽家屋)

- 지정번호 : 중요민속자료 제154호
- 건축유형 : 주택
- 소 재 지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572-1
- 창건시기 : 18C후반 추정

화순군 월곡마을은 제주양씨의 집성촌으로 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양승수가옥과 양동호가옥은 이 마을의 바로 이웃에 위치한다. 건물의 배치는 각동의 건물을 나란히 배열해서 양승수가옥은 조금 비탈진 대지의 2단의 높은 축대 위에 거의 서향하여 자리하고 있다. 사랑채였던 양재국씨 댁은 안채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향을 조금 남쪽으로 틀어서 배치하였다. 이것 역시 마당보다는 높기 때문에 2단 축대로 처리했다. 이 집의 대문은 별도로 두었는데 직각 축을 써서 마당 모퉁이 왼쪽 면에 남향하여 자리했다.

이는 월곡마을의 공간배치형상이 마을 앞으로 지나 골짜기로 올라가는 통과도로를 전면에 두고 전후로 2열의 대지가 나란하게 자리잡은 형태이기때문에 양동호가옥은 전열에 위치하고 양승수가옥은 후열의 대지에 위치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안채에 해당하는 건물 하나만이 양승수가옥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바로 옆

에 있는 양재국가옥이 원래는 양승수가옥의 사랑채였다고 한다. 그러나 두 집을 합해도 양반가옥의 공간짜임새는 잃고 있다. 이를 증거 하듯이 양재국가옥의 경우 평면의 형태가 이 지역의 일반적인 살림채에서 볼 수 있는 一자집의 형태가 아니라 T자형의 독특한 평면형을 하고 있으며, 아직도 두집 사이에는 마당의 일부만을 담장으로 갈라놓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자유분방한 토호의 주택이었는데 중간에 집이 나뉘면서 부속건물들이 헐리고 새로 지어지면서 지금과 같이 엉성하게 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이외에도 양승수가옥은 초가지붕을 얹은 평대문 형식의 정면 6칸의 행랑채가 있다. 이 대문간은 3량 6칸, 우진각 지붕집이다. 20세기 중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채는 정면 5칸과 측면으로는 전후 두 칸의 규모를 가지며 양마구리에서는 후면으로 부분적으로 돌출하여 전체적으로 세 칸의 폭을 갖는 요(凹형)자의 평면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자형의 평면은 보성의 이금재가옥과 이용우가옥에서도 발견되는데 보성의 집 들이 후면으로 한 칸씩의 완전한 돌출을 갖는데 반하여 양승수가옥의 경우는 단지 반 칸 정도만 돌출할 뿐이다. 또한 보성의 집들은 배면공간이 좁고 다소 밀폐되었는데 월곡의 양씨집들은 개방적이며 뒤뜰이 넓어 채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채는 몸채가 '一'자형 평면인데 양쪽에 날개채를 달아 요자형이 된 것이다. 원래 요자형평면을 하였는지 아니면 나중에 일자형몸채를 증축하여 요자형평면이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간살이는 왼쪽날개는 3칸 반, 오른쪽 날개는 3칸이며, 몸채는 4칸이다.

향 좌측으로부터 제1칸은 전면의 1칸을 온돌방으로, 나머지 2칸은 대청 마루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당시에는 수장공간으로 사용하였던 것 같다. 이 마루방은 양동호가옥의 좌측 마루방과 같이 외기에 면한 좌측면, 즉 남쪽을 정면으로 삼고 안대청을 향하여는 외여닫이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제2칸과 제3칸은 전후 2칸 폭을 통간으로 처리하여 대청마루를 드렸고, 제4칸은 전면에 툇마루를 가진 다소 넓은 안방을 두고 후퇴부분에는 두 개로 구획된 골방인 도장방을 두었다. 이중에 한 칸은 안방위에 둔 다락으로 오르는 목조계단을 두었다. 마지막 칸은 전면의 2칸 정도를 부엌으로 사용하고 후면의 1칸에 정지방을 드렸다. 역시 양동호가옥에서와 같이 이 정지방에서는 안방 뒤의 도장방을 통하여 안방과 연결되며, 부엌 및 부엌 옆의 작업공간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하였다. 지붕은 날개채 전후면은 박공으로 하고 몸채도 양쪽은 날개용 마루에 지붕을 올려 합각을 만들었는데 오른쪽 날개 전면은 바깥지붕만을 두어서 눈썹지붕으로 처리하고 큰 방 앞에서 지붕이 기우러져 회첨골이 생기는 것을 피했다.

몸채의 구조는 5량이고 날개채는 3량인데 날개채 종도리를 종보로 삼아 몸채의 중도리와 종도리가 걸쳐졌다. 기단은 낮은 자연석으로 경계하고 보다 앞에 조금 높은 축대를 이중으로 쌓았다. 즉 낮은 외벌대기단위에 윗부분을 다듬은 초석을 놓고 굵은 네모기둥을 세웠다. 기둥머리에는 보아지와 장혀를 직각방향으로 사개맞춤하였다. 이 지붕의 기구구조는 무고주5량가로 넓은 보칸을 고주없이 굵은 보로 걸쳤다. 보위에는 낮은 동자주를 세우고 짧은 종보를 얹은 다음 그 중앙에 사다리꼴의 대공을 두어 장혀받침종도리를 지지하고 있다. 보의 단면은 달걀꼴이고 대공은 판대공이다.

양재국가옥은 'ㅓ'자 모양 집인데 안채보다 규모있게 지었을 뿐 평면구성, 구조기법 등이 양승수가옥과 유사하다. 간살이는 몸채 왼쪽 1칸은 전후퇴를 터서 대청으로 하

고, 다음 중앙 2칸은 사랑방이다. 오른쪽 날개는 앞 2칸은 부엌, 뒤에는 뒷방으로 사용한다.

양승수가옥의 사랑채로 여겨지는 양재국가옥은 T자형의 평면형을 갖는다. 그러나 기둥의 배열이 매끄럽지 않고, 몸통부와 돌출부 사이에 기둥의 형식 및 칸 치수에도 많은 차이가 있으며 지붕의 형식도 서로 달라 처음부터 그러한 형태로 계획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안채와 나란하게 정면 3칸, 측면 2칸의 一자집을 두고 그 한쪽 마구리면에 정면 3칸, 측면 단칸의 一자집을 직각으로 붙여놓은 것과 같은 형식이다. 안채와 나란한 一자집은 측면이 2칸의 건물로 팔작지붕을 올렸고, 직각으로 붙은 집은 측면이 1칸의 홑집으로 맞배지붕을 올렸다. 또 두 집이 만나는 부분에는 각각의 질서에 부응하는 기둥들을 60cm 간격으로 나란히 배열하여 두 개의 집이 서로 다른 질서에 의하여 지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둥배열은 두 개의 건물이 따로 지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접합부의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 지어질 때부터 그렇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면의 구성은 향 좌측의 제1칸을 전후 2칸의 통간 대청으로 만들고, 나머지 2칸은 전면에는 툇마루, 후면에는 벽감을 가진 온돌방을 두었고, 이에 직각으로 붙은 3칸에는 앞에서부터 2칸은 부엌, 후면의 1칸은 정지방으로 하여 공간구성상의 기본 골격은 안방의 그것과 같다. 즉 양동호가옥의 안채 및 양승수가옥의 안채와 이 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평면구성은 향 좌측의 제1칸을 마루방으로 구성하여 좌측, 즉 남쪽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과 안방과 부엌을 직각으로 만나게 구성하고 그 만나는 접합부에 정지방을 두어 두 공간사이를 연결하게 하는 공간구성 수법이다. 평면형이 매우 독특하게 T자형을 취하고 있음에도 공간구성의 수법은 양동호가옥의 안채, 양승수가옥의 안채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돌출부가 살림채로 전용되면서 증 · 개축된 것이라는 가설을 보강하는 자료로 생각된다.

양승수가옥의 안채는 윗부분을 거칠게 다듬은 덤벙주초에 네모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사랑채, 즉 양재국가옥은 부분적으로 원기둥을 함께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안채와 나란한 一자집은 원기둥을 사용하고, 이에 직각으로 붙어 있는 부분은 모두 모기둥을 사용하였다. 현재 양재국가옥은 양승수가옥과는 다른 고샅에 있는 별도의 문간채를 통하여 진입하게 되어 있다.

인근의 양재국가옥을 포함하여 양승수가옥은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되어 있는 대규모의 살림집으로서 건립연대 역시 양동호가옥과 비슷한 18세기 중엽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평면구성상에 있어서 두 집 모두 요(凹)자형 평면이고, 넓은 대청이 있으며, 전면에 퇴칸을 두지 않았고, 정지방을 두고 있는 독특한 평면형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호남지역의 도서 및 연안지방에서 발견되는 정지방이 부엌의 전면으로 나가고 부엌이 후면으로 배열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안마당을 어떤 공간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부엌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이러한 차이가 시기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을 가질 수 있는 경제력의 차이인지는 앞으로 보다 많은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4. 보성지방 주거건축과 거북정의 특징과 의미

보성지방에 현존하는 중·상류이상의 주택 즉 班家는 대부분 한반도 남부지방을 대표하는 주거형식으로서 평면형태는 一字形이고, 건립연대는 모두 조선시대 특히 조선중기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다. 조선시대 중·상류주거의 생활계층은 중인층과 양반층에 해당된다. 흔히 양반이라고 하면, 정치적·경제적으로 지배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상류주거가 결국은 양반층의 주거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으나 후대로 가면서 신분보다는 경제력만 확보되면 집을 크고 좋게 짓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즉 서민계급에서 경제적인 부가 늘어 신흥 양반층이 등장하게 되면서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당대에 부의 척도는 결국 농토이고 농사를 많이 짓는 이들을 부농층이라 구별 짓기도 한다.

특히 1800년 이후 시작된 세도정치는 정권이 소수의 문벌에서 독점되고 대다수 양반층은 권력에서 소외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 양반들은 토착지주화되었고 양반이라는 신분유지는 경제력의 확보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양반층의 토착화에 따라 중·상류주거에도 지역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 지역적으로 건축유형이 달리하고 있다. 특히 안채의 경우 그 지역 서민주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 지며, 토착지주화에 따라 농업경영이 가사생활에 중요한 부분으로 부가되어 마당과 채[棟] 구성에 있어 지역적인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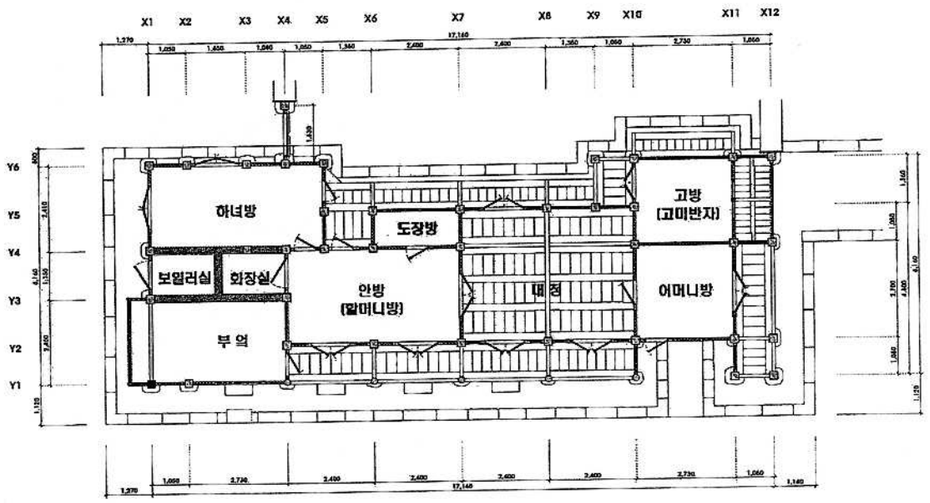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보다 넓은 지역이 상대적 비교의 범위로 설정된 것이고 아직까지는 행정적인 구분방법인 군 단위 이하에서의 차이점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주택의 평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후지역을 논거로 하여 한반도의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제주도지방형, 남부지방형, 중부지방형, 서울지방형, 평안도지방형, 함경도지방형 등으로 구분되어 지역의 특성을 도출시켰다.

이는 주남철교수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성과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한 한국주거사연구를 진일보시킨 것이다. 또한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상류주택의 성격을 밝힌 최일교수의 연구는 이를 마당과 채의 구성 및 사회현상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물들에서는 남부지방에 속한 전라남도, 더욱이 그 안에서 보성군이라는 미세한 지역의 건축적 특성을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좁은 지역에서 그것도 행정적인, 어쩌면 인위적인 구획으로 구분지워진 영역 내에서 타지역과 비교해서 상이성을 찾아내기란 그다지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수차례하면서 이제까지 南鮮形, 남부지방형식, 남도형식 등으로 막연히 표현되는 건축적 특성 속에서 다시 이 지역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나고 특징 지워지는 건축적 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속성이 보성지방에만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이 지역에서 보다 강조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성지방의 중상류주거의 건축연대는 거의 대부분 조선중기 이후에 건립된 것이고 건물의 초기 소유자는 뚜렷한 신분상의 상위계급인 양반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토지가 많은 중농이상 혹은 부농층이면서 지역사회에서 선도층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상위계급이라 생각된다. 거북정의 건립자나 거주자 역시 이러한 성격이 강한 주거형식이다. 즉 국가가 간척사업을 한 자들에게 농토의 일부를 주거나 세금과 부역을 면제하여 주었던 시기에 보성의 지주들도 이러한 사업에 동참하여 많은 농토를 얻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후손들도 역시 토지를 아주 많이 소유하고 있고 고등교육을 받아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향촌사회의 지도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제들은 서울로 유학하였고 이들은 나중에 일본에까지 유학하여 대단한 학식을 갖춘 자들이 되었다. 다만 이들이 해방과 한국동란이후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10] 거북정의 凹字形 안채 평면도

나. 보성군의 안채건축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남부지방형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一字形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거북정의 안채처럼 후면으로 돌출시켜 전체적으로는 요(凹)자형의 평면을 하고 있는 집도 있다. 보성군 강골마을(오봉리)과 옥암리의 광주 이씨가옥들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해남 윤씨가옥과 화순의 제주양씨 가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튀어나온 ㄷ자형평면과 앞뒤로 튀어나온 工字形도 있다. 물론 이들이 서로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 아니어서 관심을 갖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마 姓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지방의 지인이던지, 인척관계에 있어 서로 주택경영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였을 지도 모른다. 같은 장인이 건축하거나 교류가 많은 집안끼리

가옥건축에 대한 정보를 함께 하였을 수도 있다. 거북정의 조상중에서 해남 윤씨와 사돈을 맺음도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다. 안채와 사랑채, 중문간채, 문간채, 사당 등으로 구성되는 전라남도 지방의 住棟의 배치형식은 넓은 대지에 채와 채가 각각 독립된 모습으로 배치된 형식을 취한다. 특이한 예로 집터 대지가 좁은 기호지방, 경북지방의 ㅁ자형식의 배치와는 달리 전남지방의 일반주거형식이라 할 수 있는 보성지방주거인 거북정은 집터가 넓어 넓은 안마당을 두었고 각 건물들이 각기 별도로 분산형으로 위치하고 있다. 물론 전라남도 지방에도 여러 채가 모여서 튼 ㄷ자나 튼ㅁ자 배치형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여러 채의 건물이 분산형으로 배치된 모습은 얼핏 원칙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보다 친자연적이고 대지에 순응한 배치기법이라 할 것이다. 자연의 지세를 최대한 살리고 그 미세한 지세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인 원칙은 전면에 사랑채를 두고 그와 나란하게 후면에 안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향을 차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지세의 경사를 이용해 방향을 바꾸어 직각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 사랑채와 안채를 옆으로 나란히 늘어놓는 배치형식도 발견된다. 이들 모두는 도면상의 도식적인 배치원칙을 따르기 보다는 진입에서 방으로 이르는 사람의 실제 움직임상의 선후관계를 고려한 배치기법이라 할 수 있다.

라. 조선시대 가옥의 구성은 기능과 家禮에 따라 공간을 분할하였다. 특히 남녀가 유별함을 주거공간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였다. 채와 채를 달리하고, 동선을 유도하였으며, 시선을 차단하였다. 거북정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여실히 나타난다. 안채와 사랑채는 바깥주인과 안주인이 각각 주체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외간남자가 안채에 접근하거나 바라볼 수 없도록 담장으로 막거나 내외담을 만들어 시선을 차단하였다. 안채를 비롯하여 사랑채와 문간채 등을 고루 갖춘 대농집으로 당연히 초가집인 안채에서 시작하여 차츰 새로운 채들이 기와집으로 들어서면서 대가집다운 면모를 갖추어 졌을 것이다. 물론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부리고 사는 노비와 상민 일꾼, 집안의 일을 도와주는 집사, 바깥주인인 가장, 안주인, 자녀들, 주인을 찾아온 식객들 등 다양한 인적구성을 하였고 이들이 머무는 가옥들이 각각 있었을 것이다.

마. 조선후기 집들처럼 전남지방 대부분의 주택들은 겹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겹집이란 구조골격의 전후로 툇간을 가진 전 • 후퇴집 혹은 前後左右로 모두 툇간을 가진 전후좌우 퇴집의 구조를 가지나, 실내공간의 사용에 있어서는 집의 일부분(대체로는 좌우측의 마지막칸)을 전후로 양분하여 상 • 하방을 두는 집을 말한다. 상 • 하방을 두는 것은 전통적인 주거건축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인데, 안채의 생활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내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생겨난 변화로 보여 진다. 거북정의 경우도 바라보는 방향으로 우측단부에 상하방을 두었다.

평면의 분화발전의 경로는 겹집화에 그치지 않는다. 전면에서 보았을 때는 一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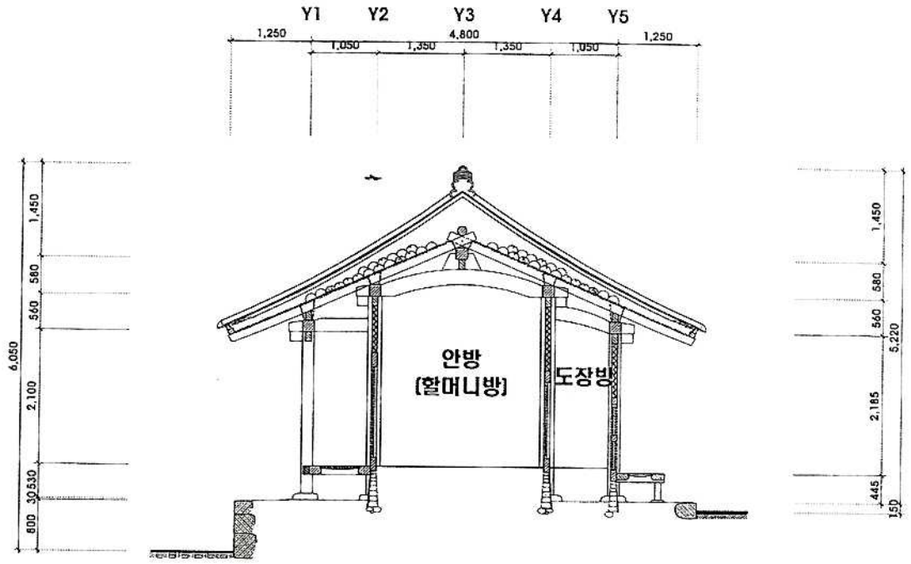
의 집으로 보이지만 후면으로 돌출부를 가져 전체적으로는 요(凹)자형의 평면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그 변화의 동기나 결과로 볼 때 매우 예색적인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이는 좌우방향으로 일자형으로 펼쳐져 길고 커 보이며 평면보다는 짧아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집이란 대체로 자기과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값비싼 재화로 대대로 물려 사용하는 것이니 만큼, 보통의 경우 실제보다 과장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오히려 외부에서 볼 때 실제보다도 작아 보이게 하는 것이 특이하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안채의 후면부, 혹은 상부의 다락 등을 이용하여 밖에서는 알 수 없는 비밀의 수장공간을 만드는 것도 근대기 전남지역의 집들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는 모두 풍부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곡식이나 재화의 비밀 수납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학운동 이후의 내외적으로 불안한 사회정세를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는 당시 사회상이 건물이 너무 크거나 호화로움을 숨기려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옥의 배면에 둘러싸여진 여성적인 공간, 즉 다소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가사작업과 수장공간으로 한 것이라 하겠다.

바. 남부지방 주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청이 모든 안채의 건물에서 나타나는데 실의 구성상 대청이 다른 어떤 실보다도 가장 넓다. 특히 대청의 뒤 쪽에서 이루어지는 퇴칸에는 조그마한 고방, 즉 도장을 만들어 생활용품이나 저장용 음식을 보관하고 있다. 물론 이 도장에는 사당처럼 선현들의 위폐를 모시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중·상류주택에서는 空樓라 부르는 중층 다락이 있어 격납, 수장,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거북성의 경우는 대청이 아닌 큰방 뒷칸에 노장방을 두었나.
또한 대청의 앞면에는 한식띠살문을 설치하는데 반해 뒤쪽에는 앞쪽 출입문 보다는 높이가 작은 둔테 판장문을 둔다. 이는 요(凹)자형으로 형성되는 안채의 뒷마당이 활용의 기능보다는 사적인 공간으로의 성격이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뒤쪽의 둔테 판장문의 크기에서도 이 문이 출입의 기능보다는 통풍을 위한 것이라 알 수 있다.

사. 각 건물에는 부엌을 1개소 두었는데 그 면적이 넓고 증축한 흔적이 뚜렷이 보인다. 집주인이나 일꾼 등 함께 식사하거나 숙박하는 자들이 많으니 이들을 위한 공간이 더욱 넓어야 했을 것이다. 거북정의 경우는 부엌 뒷칸에 식사 일을 돕는 식모방을 두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였다.
또한 건넌방이나 작은방의 난방을 위해서는 깊은 함실아궁이를 방의 전면에 설치하였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깊다. 또한 부엌에서 사람이 기거하는 방쪽으로 연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삼각형의 판재를 서까래와 기둥 사이에 설치하였다.

아. 거북정을 비롯하여 보성지방 대부분의 대농 가옥의 가구구조는 2고주5량집으로 전후좌우에 퇴칸을 두었다. 높은 기둥인 고주를 앞뒤에 두고 낮은 기둥을 다시 그 외곽에 다시 세워 측면칸의 넓이를 가급적이면 넓게 한 것이다. 특히 전후좌우를 모두



[그림 11] 앞뒤에 퇴칸이 있고 二高柱五樑架構인 안채 단면도

퇴칸을 돌려 면적을 넓히고 퇴칸의 내부에 위치한 실공간을 위요시킨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형태, 즉 전후좌우퇴집을 방풍집이라고도 한다. 특히 배면에 좁은 쪽마루를 두어 배면공간을 활용할 경우 보다 출입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배면의 퇴칸을 실공간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툇마루를 퇴칸의 밖에 설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골조의 크기가 굵고 간살잡이가 넓어 건물의 규모가 크다. 이는 전남지방주거건축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아무래도 땅이 넓고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지방의 건축이 농사를 적게 짓는 지역에 비하여 가옥의 대지가 넓고 규모가 커지게 된다. 큰 건물은 당연히 골조가 굵고 간살이 넓어지기 마련이다.
거북정의 경우 2고주 5량 구조로 된 가구형식을 따른다. 이 경우 도리가 5개 있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도리는 굴도리와 납도리가 많은데 거북정은 잘 다듬은 8각형 도리를 사용하였다. 가옥을 꾸밈에 있어 의장적인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자. 보성과 강진지방의 서민주거인 민가에서는 유지기가 발견된다. 이 유지기는 희귀한 예로 보기 힘드나 용마루 좌우의 끝부분에 마치 상투를 튼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유지기, 유지뱅이라고도 부른다. 특별한 기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 이곳 거북정에서는 유지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차. 또한 거북정에서 의미있게 보아야 할 공간은 사랑채 앞 마당에 조성된 정원이다. 양반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안마당에는 나무를 심지 않은 것이 상례이나 사랑마당에는 즐겨 정원을 꾸몄다. 거북정에서는 뒷산의 계곡에서 끌어들인 계곡물이 흘러와서 조그마한 연못에 머물다 넘치면 흘러 나가게 한 정원으로 주변에는 소나무를 비롯하여 각종 수목이 심어져 있다. 이 나무들은 각각 수목이 갖는 상징을 내포하고 있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정원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도가적 삶을 살았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변을 돌로 쌓은 조그마한 연못이 한반도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당대 이 정원을 조성하였던 분의 각별한 나라사랑을 느끼게 한다.

봉강 정해룡과 민족교육

오 승 용
(전남대 정치학)

1. 들어가는 말

생애사적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봉강 정해룡의 활동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업, 인쇄업, 양조업, 광업 등의 경제활동. 둘째, 지역에서의 항일행위 및 해외 항일운동 지원 등을 포함하는 항일활동. 셋째, 보성전문학교 지원, 양정원 설립·운영 등의 교육활동. 넷째, 빈민구제, 노비해방 등의 사회활동. 다섯째, 건국준비위원회(좌익성향)부터 구국청년연맹(우익성향)을 거쳐, 근로인민당 참여, 국회의원 출마, 혁신운동 지원에 이르는 정치활동이 그것이다. 이처럼 정해룡의 활동반경이 매우 넓은 관계로 정해룡의 생애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매우 넓은 스펙트럼에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자료에 대한 치밀한 해석, 그리고 당시의 시대상황과 보성지역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분석이 필요하다. 정해룡은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대한민국 건국과 4월혁명에 이르는 격동의 시기를 살아온 인물이었으며,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자신에게 부과된 소명을 침묵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여러 평가가 가능하지만 특히 봉강 정해룡의 삶을 역동적 삶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해룡의 인생역정은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 해방 전후 좌우익 갈등, 건국 이후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국면들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사례다.

이 글은 정해룡의 여러 활동 중 일제 강점기의 민족교육과 관련한 활동만을 다룬다. 물론 일제 강점기 정해룡이 수행했던 활동인 민족교육활동,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활동을 위해 경제활동을 확장했던 측면도 있고, 경제활동 경험이 축적되면서 사회활동으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해룡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제별·분야별로 특정 활동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보다는 시기별로 살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접근일 수 있다. 모든 활동이 연관되어 있다는 지극히 기초적인 사실 외에도 일본의 지배라는 엄혹한 조건 하에서 불가피하게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과 그러면서도 일본의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주의 성향의 향토 지주가 할 수 있었던 역할을 모색했던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제 강점 하에서 정해룡의 활동은 주로 교육활동에 집중되었고, 해방 이후 정해룡의 활동은 주로 정치활동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교육활동을 집중 조명해 보는 것은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정해룡의 행보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공교롭게도 시대적 상황의 변

화였다. 정해룡의 활동은 긍정적인 의미에서건 부정적인 의미에서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매우 능동적으로 대응했던 측면이 있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정해룡이 어떻게 수용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지만 이 글에서 이를 모두 다룰 수는 없기에 일제 강점기의 교육관련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교육활동을 다루면서 인접 영역의 활동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를 간략하게라도 언급해보고자 한다.

2. 일제의 교육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정해룡의 민족교육 활동을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정해룡의 교육활동을 민족교육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즉 단순한 교육활동이 아니라 민족교육활동이라고 명명해야 하는 근거 확인 혹은 민족교육이라는 스펙트럼에서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어를 가르치면 무조건 민족교육인 것은 아닐 것이고, 인재교육을 통한 국권회복이라는 목표의 실현이 중요해진다. 교육의 목적을 국권회복에 둔다는 것은 저항적 교육이념으로서 민족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글의 보급을 통해 민중을 계몽하는 것은 물론 민족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교재와 수업내용을 채택하고, 교련성격의 체육수업 등도 실시했는데, 이러한 교육활동은 모두 장기적으로 국권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있었다. 정해룡의 교육은 민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서 출발하여 민족교육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라는 더 엄혹해진 시대상황으로 인해 초보적인 수준의 민족교육이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활동의 역사적 의의까지 퇴색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1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식민지 교육체제 구축의 기본 작업으로 제1차 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제1차 교육령은 한국인 교육을 위한 법령이며, 이 시기 한국에 있던 일본인을 위한 일본제국은 한국에서의 식민지 통치 방침을 변경하여 이른바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에 입각한 문화정치를 전개하였다. 이는 제2차 교육령 개정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교육령을 통해 한국인 교육과 일본인 교육을 법적으로 규정짓는 조치를 취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일본 제국은 한국에서의 식민지 통치방침을 이른바 내선일체에 입각한 강력한 동화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일환으로 한국인 교육기관과 일본인 교육기관의 명칭을 통일하는 등의 교육정책을 실시했타.

이는 제3차 교육령 개정으로 나타났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 일제는 식민지 통치방침을 전시 총동원체제구축을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그 일환으로 제4차 교육령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1차 교육령은 한국인 대상 식민교육을 크게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였다. 학교의 설립과 폐지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이들 학교의 교과목, 과정, 직원, 교과서, 수업료는 조선총독의 이러한 설립·폐지 인가권, 교직원과 교육과정에 대한 통제, 사립각종학교에 대한 통제권은 식

민지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민족교육은 일제 강점기에 가장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물리적 저항을 통한 독립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교육은 독립을 위한 투쟁과 생존의 도구로까지 인식되었다. 이에 반해 일제의 식민지 교육은 조선인으로서의 주체성과 독립을 위한 의식형성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식민지 교육에 맞서는 민족교육은 당시 조선인에게 있어서 '최후의 희망'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정영수 1985, 29-30).

이렇듯 당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던 민족교육은 민족독립의식을 고취하고 군사적 투쟁능력을 양성하는 등 독립투쟁의 핵심적 방편으로 교육을 이용하였다(김신일 2003).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민족교육을 토대로 한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교육투쟁은 크게 네 가지 양상을 띠었다. 첫째는 조선인의 취학 기회제한에 대항하거나 학교설립 확대를 위한 투쟁을 벌이는 등 총독부 교육정책과의 투쟁이었다. 둘째는 일제의 압박과 위협에 맞서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야학이나 위장 서당 혹은 비밀 학습조직 등을 통한 비밀 민족교육이었다. 넷째는 만주와 연해주 등 해외로 진출하여 일제의 탄압을 피해 민족교육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1908년 일제가 「사립학교령」을 제정하여 당시 5천여 개에 이르던 사립학교들을 탄압하여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게 되자 새롭게 부각된 민족교육운동이 지하민족교육이었다. 여기에는 각종 야학과 학술강습회를 통한 민중교육이 주요 형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총독부가 다시 한 번 「사설학술강습회에 관한 건」이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지하에서의 민족교육에까지 위협을 가하게 되자 1920년대 말 이후에는 지하 민족교육 또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지속적인 민족교육 탄압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찾아낸 것이 서당이었다. 민족교육자들은 전통의 서당과는 조금 다른 개량서당의 형태를 만들어서 근대적인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1]

민족교육과 관련해 정해룡의 활동이 기록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보성전문학교 도서관의 설립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룡의 고향인 회천면 봉강리에 양정원(養正院)을 설립·운영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정해룡의 민족교육 관련 활동들을 당시의 시대상황 및 일제의 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보성전문학교 도서관 건립 후원

정해룡의 보성전문학교 도서관 건립 후원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인촌 김성수와

1) 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교육령은 네 차례 개정되었다. (김신일 2003). 제1차 조선교육령(칙령 제229호, 1911.8.22.-1922.2.4.). 제2차 조선교육령(칙령 제19호, 1922.2.4.-1938.3.3.), 제3차 조선교육령(칙령 제103호, 1938.3.3.-1943.4.1.). 제4차 조선교육령(칙령 제113호, 1943.4.1.-1945.8.15.)이 그것이다.